

성도의 벗 3  
1982



# 성도의 벗 3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 대판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볼  
엔 엘든 태너  
매리온 지 풀너  
고든 비 힙클리

###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파커  
마빈 제이 애쉬턴  
브루스 알 맥풀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 고문

엠 러셀 빌라드 이세  
로렌 시 던  
렉스 디 피네가  
찰스 에이 디메이  
조지 피리  
에프 앤지오 부쉬

## 차례

“항상 기도하라”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1
질의 응답		9
사랑으로 행할 때	제이 스펜서 카리나드	11
예수 그리스도	에드윈 브라운 퍼미지	12
“저는 당신의 가정 복음 교사이		
휴즈 형제입니다	마티네 베이츠	20
가정 복음 교사의 축복	데리스 젠 스토크스	21
검은 구름을 헤치고	캐시 월콕스	23
하나님의 일	데릭 에이 커스버트	25
원저 할머니의 지혜	콜린 라일자	32
“나를 시험하라”	스캇 알 메이저스	34
심심풀이		36
친구가 친구에게		37
유산	베티 루 멜	40
지역 지도자 메시지	허 채 인천 스테이크 부장	44
“변화속의 불변성”	엔 엘든 태너 부대관장	46

성도의 벗 1년 정기  
구독료는 3,5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8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당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 / 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벗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 권 : 제200호, 제18권 제3호

등 록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방행일 : 1982년 3월 1일(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진 피 딜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 72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514091

인쇄인 : 상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STOCK NO. PBMA0438KO PRINTED IN SEOUL, KOREA 3/82 International magazine

© 1982년  
제단 베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권 소유

하 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음 사실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 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언제나 기도와 그것이 주는 힘과 축복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하는 부모님과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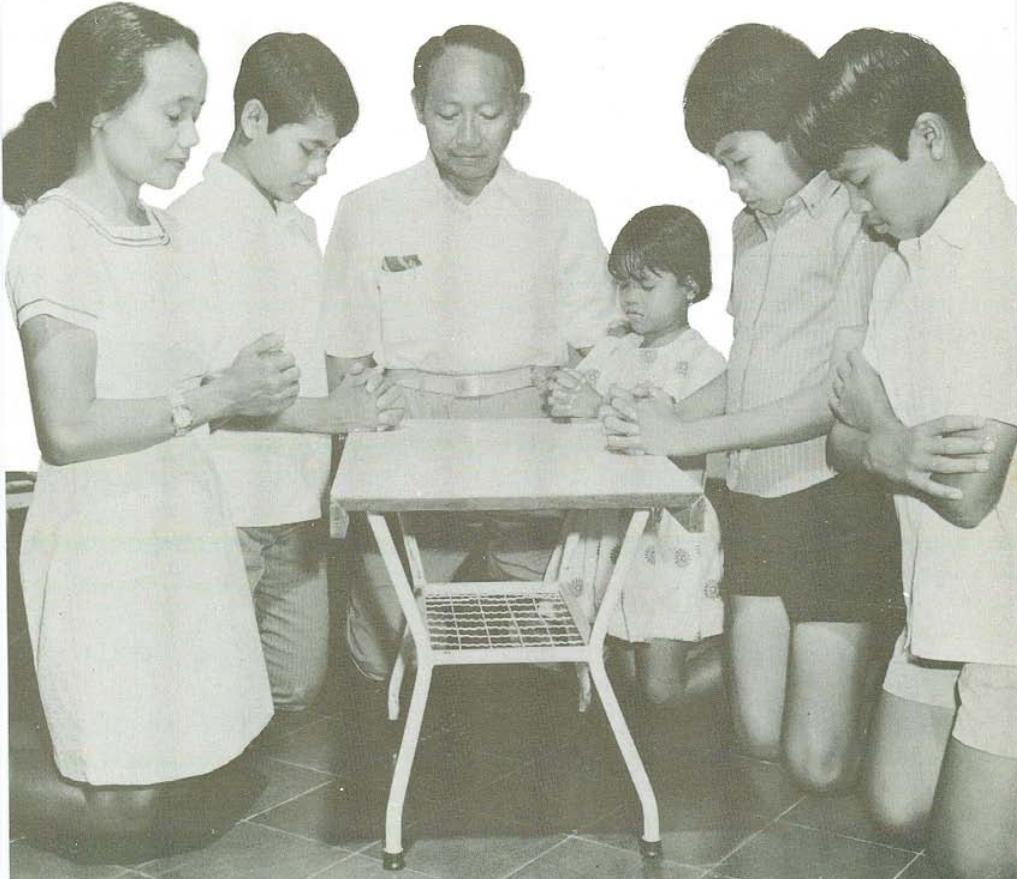
이분들은 훌륭한 말과 모범으로 마음

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의로운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식탁에 둘러 앉을 때, 개인적으로 또는 가족과 함께 열심히 의롭게 기도한다면 가족은 더욱 가까워지고 단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게 될 것으로써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리라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압니다.

## “항상 기도하라”

스펜서 더블류 킴벌 대관장



## “항상 기도하라”

우리는 우리가 복음 진리를 배우고 그에 따라 생활하려고 할 때나 학업, 결혼, 취업, 이사 등과 같이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가족을 부양하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서로 봉사할 때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의 용서와 계속적인 인도와 보호를 구할 때,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필요 사항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지만 모두 절실하고 실질적인 것입니다.

나는 일찌기 교회의 수많은 스테이크와 선교부를 여행하면서 곤란한 처지에 있거나 극히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던지는 첫째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나는 일반적으로 주님과 대화의 선이 끊어질 때 죄가 짹트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님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라. 사악한 자가 너희를 정복하여 너희 처소에서 너희를 옮겨 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라.” (교성 93 : 49)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같이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께 있사옵나이다. 아멘.”(니파이삼서 13 : 9-13)

이러한 가르침에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도라든가, 주님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마음,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우리의 신앙과 삶이 올바른 궤도에 있는지 알아보는 것 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기본적인 지침을 배우고자 한다면, 영적인 면에서 또한 기도를 이해하는 면에서 훨씬 더 발전할 터전을 마련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 또는 공적인 장소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힘들게 생각될지는 모르나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부드럽고 정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가에 관심을 두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디서, 누구와 함께 기도하느냐 하는 것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공공 기도나 가족 기도만이 우리가 드리는 유일한 기도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가정에서 가족 기도를 할 때 부모의 기도를 들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

다. 그들은 우리의 기도가 진실하여 정직한 것인지 아닌지 곧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런 생각없이 형식적으로 성급하게 기도한다면 그들은 곧 알아차리게 됩니다. 우리는 가족 기도를 할 때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물론의 간곡한 권고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께 간구하여……”(로마서 7:48)

어떤 것은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은밀한 가운데 드릴 수 있는 개인적인 기도를 통하여 훌륭하게 간구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드리는 기도는 무한한 가치가 있으며 영의 성장에 유익을 주며 가식이나 거짓을 버리게 합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허심 탄회하게 경건한 태도로 자신의 소망을 표현하게 합니다.

나는 오래 전부터 개인적인 기도가 은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왔습니다. 구세주께서도 이따금 기도하기 위해 산이나 광야로 가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위대한 부름을 받은 후 혼자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이노스는 주님과 대화하기 위해 외딴 곳을 찾았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혼자서 새와 나무만이 있는 숲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의 이야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찾아봅시다.“하나님께 간구하겠다는 결정에 따라 이를 실행해 보려고 나는 숲 속으로 들어갔습니다.……나는 생후 처음으로 그러한 일을 계획하였는데 나의 생애를 통하여 그렇게 꾀로와하고 있었으면서도 그때까지 소

리를 내어 기도하려고 해본 일이 한번도 없었던 것입니다.”(요셉 스미스서 2:14)

우리 역시 가능하면 은밀한 가운데 “소리를 내어 기도할” 수 있는 방이나 닦방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리내어 기도하고 여러 번 가르치셨습니다. “또다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소리를 내어 기도하고 마음속으로도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도 하고 세상 사람 앞에서도 하며 회중 앞에서도 하고 홀로도 기도하라.”(교성 19:28)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종교 생활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신권을 가진 형제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각 회원의 가정을 방문하여 소리를 내거나 은밀히 기도할 것과 가족의 의무를 다할 것을 권고하느니라.”(교성 20:51)

우리는 무엇에 관해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해 기쁨과 큰 감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어떠한 축복을 받을지라도 영으로 이를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느니라.”(교성 46:32) 우리가 받은 축복, 곧 복음과 우리가 축복받은 이 복음에 대한 지식과 부모와 그 외의 사람들의 우리를 위한 노고와 우리 가족과 친구와 훌륭한 기회와 마음과 육신과 생명을 받은 것과 일생을 통하여 얻은 유익하고 훌륭한 경험과 하나님의 모든 도움과 친절과 응답된 기도에 대하여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를 표시할 때 확신을 주는 훌륭한 영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 “항상 기도하라”

우리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읍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읍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디모데전서 2:1-2)  
우리는 그와 같이 기도하면서 나라에 대한 충성심과 우리를 다스리는 법을 존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읍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 지도자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키울 수 있으며 자녀들 역시 그들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역원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그들을 비난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가 일생 동안 지도자를 지지하며 그들의 복지를 위해 기도해 온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최근 몇 년 동안 성도들이 나를 위하여 드리는 그와 같은 열렬한 기도로 내게 커다란 힘이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에는 현재 수행되는 모든 선교 사업에 관한 것이 항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나라가 문호를 개방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와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일생 동안 선교사의 대업을 위해 기도한다면, 훌륭한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좌절하고 낙담하는 사람이나 병들고 궁핍한 사람과 죄인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다음과 같이 훌륭하고 힘찬 권고의 말씀을 기억하여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누가복음 6:27)

“우리가  
정직하고 진지하게  
기도드린다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따뜻한 느낌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훌륭한 느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8) 우리가 주변의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에 대해 적대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혜와 판단력과 이해력을 구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위험한 곳에서는 안전을 위해, 유혹의 순간에는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는 말로나 생각으로, 소리를 내거나 침묵 속에서 잠시 동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생활이 훌륭하게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입술로 꾸밈없는 기도를 드리면서 악을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결혼 생활과 자녀와 이웃과 직장과 여러 가지 결정과 교회 책임과 잔증과 생각과 목표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진실로 우리는 앰뷸레크의 위대한 권고를 받아들여, 자비를 구하고, 생계 수단을 위해, 우리의 권속을 위해, 원수의 권세를 막아내기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의의 원수와 악마를 막아 주도록” 기도하고, 들에 있는 꼭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또한 소리내어 주께 외치지 않을 때도 “너희(우리)의 복리와 너희(우리) 이웃의 복리를 위해 끊임없이 주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충만”(앨마서 34:18-28 참조)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다만 일방 통행에 불과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영혼의 소망”이 되는 한 가지 이유는 단지 하나님 아버지께 고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사랑과 영감을 받는 특권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마친 다음에는 몇 분간

이라도 정신을 집중시켜 그분의 말씀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권고와 도움을 구하기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하나님 됨을”(시편 46:10)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실까요? 주님은 기도의 응답을 의심하고 있는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요셉 스미스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가 이르노니, 만일 더 많은 증거를 원하면 이러한 일이 참된지를 알기 위하여 네 마음속으로 내게 간구하면 그날 저녁 일을 깊이 생각하라.

“내가 이 일에 관하여 네게 평강을 말하지 아니하더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보다 더 큰 증거를 얻을 수 있는 줄로 여기느냐?”(교성 6:22-23)

후에 주님은 다시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마음속으로 깊이 연구하여야 하리니, 그러한 연후에 옳은 일인지 아닌지 내게 간구하여야 하느니라. 만일 옳은 일이면 나는 네 가슴을 뜨겁게 하리니, 그로 인하여 그것이 옳은 일인 줄 느끼리라.

“그러나 옳지 아니한 일이면 그같은 느낌이 없고 다만 무감각해져서……”(교성 9:8-9)

기도할 때 사용하는 말을 배우는 것은 즐거운 일이며, 인생에 있어서의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흥수처럼 물려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강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평

온한 느낌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것을 확신케 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진지하게 기도드린다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따뜻한 느낌과 그 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훌륭한 느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평온함과 영적인 따뜻함이, 곧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었다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 있음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올바른 방법대로 생활한다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도자에게 충고를 구한 다음 그것을 무시해 버려서는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 축복을 간구한 뒤에 그 응답을 무시해 버려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시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여, 모든 것을 잘 아시오니 오직 아버지께서 지시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경전에 언급된 바와 같이 우리는 “잘 못 구”(야고보서 4:3)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것을(교성 88:65 참조) 구하거나 “의롭지”(니파이삼서 18:20) 못한 것을 구하기 쉽기 때문에 이같이 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

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막 7:9 참조, 뉴 11:13)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이처럼 특권이며 기쁨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것만으로 축하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앰뷸레크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보라……너희가 이 모두를 행한 뒤에도, 궁핍하고 헐벗은 자를 외면하며, 병들어 신음하는 자를 찾아보지 아니하고, 너희가 무엇이라도 가졌을 때 궁핍한 사람들에게 너희의 소유를 나누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정코 너희가 이 가운데 하나라도 올바로 행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의 기도는 헛된 것이라. 너희에게 유익을 가져 오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는 믿음을 거역하는 위선자같이 되리라.”(앨마서 34:28)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정직하고 열심히 복음 가운데 생활해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와 같이 행할 때, 하늘의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는 생활을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생의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대로 의롭게 생활하고 있음을 증거해 보일 때, 진실로 주님의 도움, 특히 용서를 구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는 큰 곤경에 처했던 이노스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못한고로 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방황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또한 내가 나의 죄 사함을 얻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간구한 일을 너희에게 이야기하려 하노니.”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생생하고도 감명깊게 기록했습니다. “보라, 내가 숲으로 짐승 사냥을 갔을 때……”

그러나 그는 짐승을 한 마리도 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찾기 위해 두드리고 울부짖고 애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듭났습니다. 그는 온 생애를 잠초 밭에서 살아왔지만 이제 절ガ꾸어진 정원을 찾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의 부친께서 영생과 성도들의 기쁨에 관하여 종종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마음에 깊이 스며듬을 느꼈고”

그의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그의 영혼을 뒤흔드는 그림을 보듯 부친의 분명한 말씀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영으로 깔주림을 느껴……” 회개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애 통해 하며 죄 많은 과거의 자신을 땅에 묻고 새로운 신앙의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었습니다.

“……나의 창조주 앞에 엎드려 간절히 울부짖어 구하며 내 영육을 위해 심령을 다하여 간구하였고……” 그는 아무도 죄를 지닌 채로는 구원받을 수 없

고 깨끗치 못한 것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또한 거듭난 사람에게는 더러움을 벗쳐 버리는 새로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작고 쉬운 일이 아니라 는 사실을 알았으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밤이 되도록 ……부르짖었더니”

여기에서는 무심한 기도 내용이나 상투적이고 진부한 문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몇 분, 몇 시간이 지나고 해가지고 나서도 아직 위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회개란 단순한 행위가 아니며 용서는 노력하지 않고 얻어지는 선물이 아닌 까닭입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한다는 것은 그에게 너무나 귀중한 것이었으므로 그는 굳게 결심하고 끈질기게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밤이 되도록 소리를 높여 하늘에까지 소리가 들리도록 부르짖었더니”

온 힘을 다해 울부짖고, 진심으로 서약하고, 그의 기도의 진실됨을 증명했을 때, 다음과 같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죄 사함을 받았으니 네가 복되리로다.”(이노스서 1:1-5 참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살아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시며, 기꺼이 도와 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며 기쁨입니까?

나는 일생 동안의 기도를 통하여, 정직하고 성실한 기도로 인해 사랑과 능력과 힘이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돋고 가르치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막 7:9 참조, 뉘 11:13)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위대한 사랑으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라. ……항상 기도하라.”(교성 93:49)

이같이 행할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을 구하고 또 구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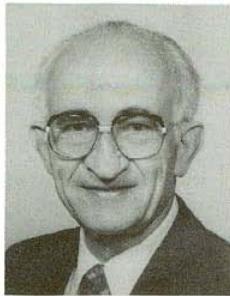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기도에 관한 개인적인 경험을 말한다. 가족들에게도 기도에 대한 그들의 경험이나 생각을 말하도록 한다.
2. 이 기사 중에서 가족이 소리내어 읽을 수 있는 성구나 인용문 그 외의 그들과 함께 읽을 만한 보충 성구가 있는가?
3.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4. 가족이 개인적인 기도나 공석상의 기도를 더욱 훌륭하게 드릴 수 있는 방법에 관해 토론한다.
5. 방문하기 전에 이 토론에 대해 가장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

# 질의 응답

다음 대답은 교회의 공식적인 정책이나 교리가 아니고 지침으로 소개되는 것이다.



어멜 제이 모튼, 축복사  
렉스버그 아이다호 이스트 스테이크

구약성서에 있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출애굽기 21:24)라는

계율에 대하여

잘 이해할 수 없읍니다.

왜 주님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복수의 율법을 주셨을까요?

**홍** 미있는 일이지만 이 성구는 복수나 보복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록된 구약성서에 의하면 이 구절은 “서로 비슷한 것으로”를 뜻하는 은유법입니다. 이 개념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라디아서 6:7)

구약 시대에 주어진 “눈은 눈으로”라는 개념은 재판을 공정하게 하여 개인이 사적으로 보복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재판관에게 주어진 원리였습니다.

앨마가 그의 아들 코리엔톤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그에 따르는 원리는 회복이었습니다. “회복이란 악이 악으로 육욕은 육욕적인 것으로…… 선은 선으로 의로움은 의로움으로…… 되돌아감을 뜻함이니”(앨마서 41:13) 구세주께서는 산상수훈에서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마태복음 7:2)

마지막으로 심판의 날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자비는 자비로, 친절은 친절로 그리고 악은 내세에서 악의 생활로 회복될 것입니다.

구세주는 산상수훈에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인용하신 다음 이와 같이 덧붙여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마태복음 5:38-39)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레위기 19 : 18)

주님께서는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거룩한 공의의 원리를 철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경전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꾸짖었습니다. 그들은 “눈은 눈으로”의 원리를 상처나 모욕을 받을 때마다 권능을 가진 사람의 판단에 말기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복수해도 좋다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율법의 일부로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명령을 받았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레위기 19 : 18) 이와 같이 그들은 복수뿐만 아니라 보복으로 이르게 되는 원한을 품는 것까지도 금지되었읍니다. 오히려 그들의 의무는 사랑하는 것이며, 복수는 주님께 맡겨야 했습니다. (신명기 32 : 35 ; 시편 94 : 1 참조)

구세주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복수하지 않도록 가르칠 때 단지 모세를 통해 준 원리를 회복하고 그것으로부터 동떨어진 세상적인 가르침의 인습을 타파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의무감 때문에 많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금을 내며, 시간이 늦더라도 속도 제한에 관한 교통 법규를 지키고, 점심 식사를 미치면 다시 일터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일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행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즉 순종하는 것을 의무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을 적발하기 위해 한쪽 구석에서 엿보고 계실 것이라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문을 읽고 싶은데 경전을 읽는다든가, 결단성 있게 현금을 낸다든가, 확고한 결심으로 기독교인다운 특성을 점검해 보는 등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철저히 행합니다.

물론 의무는 행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무를 중히 여깁니다. 그것은 훌륭한 고사이며 나태한 상태를 일깨워 주는 것

우리를 다시 주님께 인도해 줄 수 있는

# 사랑으로 행할 때

제이 스펜서 카이나드

종이며, 삶이 우리 자신의 사소한 열정이나 패락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상기시켜 주는 지팡이도 됩니다. 헛빛 속에서 놀기를 더 좋아하는 어린이가 산수공부를 해야 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숭고한 행위를 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주는 의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의무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소견 좁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길을 비추기에는 너무나 약한 불빛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아침 햇살이 연못의 얼음을 녹이듯이 사랑으로 의무를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두려워서 또는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에게 순종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는 가장 높은 이상과 가장 깊은 애정의 중심이 되시는 주님과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마태복음 5:6)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과 목마름이라는 낱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인간적인 욕구에 대해서 강하게 말해 줍니다. 어떤 작가는 “우리에게 굽주림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랑은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감동시키는 일종의 열정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읍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가 의무감에서 행하는 행위를 받아들이시고 더 나아가서는 축복도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무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향곡을 작곡하거나 훌륭한 소설을 쓰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부모를 자녀 곁으로 이끄는 것도 사랑입니다. 또한 우리를 다시 주님께 인도해 줄 수 있는 것도 사랑이며, 오직 사랑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며, 오직 사랑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

에드원 브라운 퍼미지

몇 년 전, 나는 어떤 오찬회에 참석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나는 아주 유능하고 전도가 유망한 젊은 변호사 옆에 앉게 되었다. 나는 곧 이 젊은 이와 친해졌고 그가 우리와는 다른 기독교 종파의 회원임을 알았다. 또한 그도 내가 활동적인 물론임을 알게 되었다.

몇 마디 일상적인 인사말 끝에, 그는 내게 다소 진지한 질문을 했다. 그는 첫번째로 “물론 교회도 기독교인가요?” 하고 물었다. 그는 이 질문은 도덕적인 면보다는 신학적인 면에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물론의 그리스도관을 알기를 원했다.

그처럼 광범위한 질문에 나는 좀 당황했다. 그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내 머리 속에 든 생각을 정리하던 나는 물론의 신앙에 있어서 그리스도관에 대한 설명을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사명 이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함을 알게 되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12가지 역할에 관해 간략하게 설명함으로써 친구의 질문에 대답했다.

첫째, 나는 교리와 성약 93편의 몇몇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인간의 영원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쉬운 말로 설명했다. 그 구절에서 예수님은 예언자 요셉스미스에게 인간의 예지의 영원성에 대해 알려 주셨다. “나는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나니, 나는 장자なり라.

“너희도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나니, .....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예지 곧 진리의 빛은 창조되거나 지음을 받지 아니하였나니, 참으로 그려할 수는 없느니라.

“보라, 사람의 자유의지가 있나니”  
(교성 93 : 21, 23, 29, 31)



---

마지막으로 나는 친구에게  
아버지의 위대한 계획 중  
마지막 것이 되며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역할에 관해 설명했다.  
그것은 물문들이 믿고 있는 사실,  
즉 주님이  
아버지의 지시대로  
그가 창조하신 지상을  
통치하려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했다.

둘째, 나는 영원한 발전을 위한 주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모였던 천국 회의에 대하여 설명했다. 예수님은 창조되지도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자유의지를 보호하는 계획에 대한 아버지의 응호자였다. 루시퍼는 그 계획을 변경시켜 인간의 자유의지를 없애 버리기를 원했다. (모세서 4 : 1-3 참조)

셋째, 우리는 대부분의 자녀들이 찬성할 아버지의 계획을 추진시켜 나가기 위해 이 세상과 해아릴 수 없는 많은 다른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의 역할에 관해 토론하였다. 나는 모세에게 주어진 위대한 시현에서 다음 구절을 인용했다.

“또 나의 권능의 말씀으로 내가 이것들을 창조하였으니, 말씀은 나의 독생자요 온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니라.

“또 수없는 세계를 내가 창조하였나

니, 나 스스로의 목적이 있어 이를 창조하였고, 나는 아들 곧 나의 독생자를 시켜 무수한 세계를 창조하였느니라.”  
(모세서 1 : 32-33)

우주와 관련된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나의 친구에게는 전혀 새로운 것이어서, 그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예수님의 다음의 역할은 초대 교회에서 알려졌고 가르쳐진 것이었음에도, 나의 친구에게는 생소한 것이었다. 나는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였으며, 모세의 율법을 주신 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예수님은 커틀랜드 신전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이 사실을 알려 주셨고(교성 110 : 1-4 참조) 그 웨센 이전에도 니파이 백성들에게 그의 역할에 관해서 설명해 주셨다.

“보라 내가 율법을 내려 준 자요, 나

의 백성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자라. 그리하여 율법이 나로 인하여 이루어졌으니, 내가 율법을 이루려 왔음이라. 율법의 때는 끝났도다.”(니파이 삼서 15:5)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기 이전의 구약의 하나님인 여호와로서의 예수님이 관한 이러한 견해는 배도의 교리에 의해 폐지되기 이전에 400년 동안 초대 교회에서 가르쳐졌다. 초대 유대인 기독교도들이 율법과 예언자를 폐한데 대한 비난을 받았을 때 그들은 전파된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했던 것이며 태초로부터 예수님 자신이 선지자들에게 가르쳐 오신 것이라고 한결같이 주장했다. 아더 구시 맥기퍼트(미국의 신학자, 1861-1933년)는 그의 저서 *유세비어스의 교회사*에서, 이 위대한 교회 역사가는 초대의 모든 교부들과 같은 견해를 가졌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구약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선지자들에게 나타났던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에 대해 언급했다.

“유세비어스(팔레스타인의 신학자, 교회 역사가 및 학자)는 구약의 하나님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모습 곧 신회의 두 번째 분의 모습과 같다는 초대 교회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다. 어거스틴(초대 교회 신부이며 철학자, 354-430년)은 다른 신부들과는 색다른 견해를 가진 최초의 사람이었으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아버지와 아들같이 본질적인 개체성을 일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맥기퍼드 편, 유세비어스의 교회사, 1890년)

나의 친구가 알고 있는 지식과 물론의 그리스도관에서 공통적인 배경을 찾게 된 것은 주님의 다섯번째 위대한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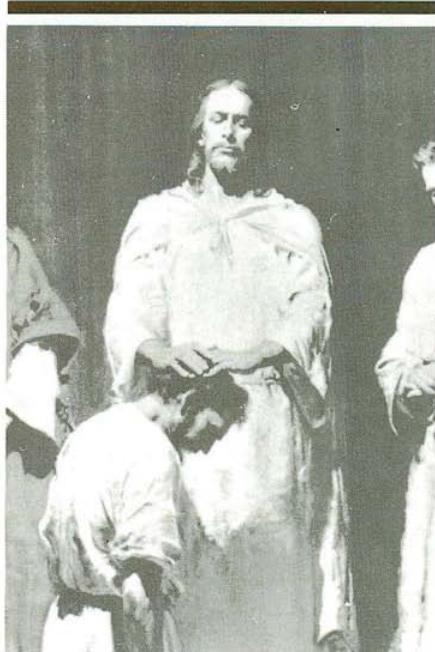
활에 대한 토론에서였다. 우리는 예수님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고, 예수를 성취하셨으며, 그가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셨으며, 그가 구약 시대의 선지자에게 가르치신 후 다시 복음을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으로 믿고 있고, 그후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데서 의견이 일치되었다. 물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 계시는 동안 신권의 권세로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는다고 설명하고 몇몇 사람들이 믿고 있는 바와 같이 교회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히신 후 그를 따르던 자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주님은 그의 사도들을 성임하시고 철십인을 세우셔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내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각 역원을 택하셨다. 주님의 중심되는 역할은, 물론 다른 사람에 의해 대행될 수 없는 것이었으며 오직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는 것이었다. 나는 그 친구에게 그것이 가장 실제적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간증했다. 나는 어떻게 한 인간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인의 부활이 가능하게 되는가는 나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에게 말했다. 그러한 일이 실제로 있었으며 이 계획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확실히 알고 있었으므로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한가를 이해하지 않아도 되었다.

예수님의 여섯번째 역할에 관한 우리의 신앙은 그 특별한 본질로 인해, 내 친구가 이해 또는 인식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그에게는 전혀 새롭게 느껴졌을 것이다. 나는 죄선을 다해 죽은 자와 지옥, 죽은 자의 영이 거하는 영옥에서

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해 설명했다. 다시 한번 나는 이 사명이 초대 교회의 회원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던 것임을 확인했다. 이 사명은 참으로 아버지의 계획 중에서 극히 중요한 일부였다.

예수께서는 변형되기 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그 자신의 의도를 말씀하셨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형되던 때의 중요한 열쇠와 엔다우먼트를 받았다고 말씀했다. 이 사실은 주께서 전에 베드로에게 인봉하는 권세에 관해 말씀하신 것에 보다 더 깊은 의미를 던져 주는 것이다. (교회 정사 3 : 387)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답하여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위대한 고백을 하였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들은 후 주님은 베드로에게 교회에 대하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6 : 13-19 참조)

음부는 신야성서를 번역했던 킹 제임스 학자들에게는 오늘날 몇몇 사람들이 뜻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었다. 이것은 사악한 사람들이 가는 사탄이 지배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죽은 사람의 영이 거하는 장소인 영의 세계를 의미한 것이었다. 더욱 가능성의 “문(권세)”은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를 분리하는 외부의 방어물을 뜻했다. 그러므로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문, 곧 외부의 방어물 또는 음부의 경계, 다시 말해서, 죽은자의 세계는 교회가 그곳에 들어가 죽음에 얹매인 자들을 풀어놓은 것을 막지 못한다는 뜻이었다. 주님은 실제로 그가 음부로 내려가셨고 그곳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요한복음 10 : 16)

서 복음을 전하셨으며, 또한 인간에게 펼멸을 가져오는 사망을 이기셨음을 알려 주셨다.

주님의 믿음은 초대 교회에서 가장 오랜 근거를 가진 것으로서, 그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요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되었다. 교리와 성약의 위대한 신권에 관해 기록된 편에서, 주님은 요셉에게 충만한 구원의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계시하셨다. “절정의 시기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후에 믿은 자뿐만 아니라 저가 오시기 전에 태초로부터 만사에 주를 그리스도라 참되게 증거하시는 성신의 은사나 영감을 받아 말씀하는 거룩한 예언자의 말을 믿는자는 영생을 얻느니라.”(교성 20:26)

이와 동일한 메시지가 2세기의 기독교 학자 이레네우스에 의해 요셉 스미스가 말한 것과 놀라울 만큼 유사한 언어로 가르쳐졌다.

“이것은 단순히 그리스도가 오셨던 더베료 가이사 시대에 그를 믿었던 자들만을 위해, 또한 지금 살아 있는 자들만을 위해 하나님의 섭리가 행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태초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들의 이웃에게 공의와 자비를 베풀고, 심히 그리스도를 보기 원하며, 또한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던 모든 사람을 위해 행해진 것이었다.”(이레네우스, 제 4권 이레네우스의 저서 제 1권 “이교도” 안데 나이신 크리스찬 라이브러리, 1867년, 454-55페이지)

나는 복음이 영의 세계에서도 소개된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구원의 기회의 보편성에 관한 교리를 설명했다. 2세기 경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저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주님은 영의 세계에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가르쳤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영의 세계는 멸망을 뜻한다. 우리는 그의 형상을 보지는 못했으나 그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나 그 방법은? 경전에는 홍수로 죽은 자들에게 주께서 복음을 전하셨음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가? ……주님을 따르는 사도들은 영의 세계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곳에서나 그곳에서나 가장 훌륭한 제자가 되려는 자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는 히브리인에게나 이방인에게 회개를 전해야 했다. ……주님은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으로 영의 세계에 내려가셨다. 이러한 자들이 무조건 저주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며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신 후에 살았던 자들만이 신성한 의로움의 유익을 받을 특권을 가진다는 것도 공평치 못하다. ……만일 그가 육신을 가진 자들이 불의하게 정죄받지 않도록 복음을 가르쳤다면, 동일한 목적으로 그가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제 6집, 클레멘트 알렉산드리아의 저서 제 2권, “부록”, 안데 나이신 크리스찬 라이브러리, 1867년, 328-34페이지)

현대의 예언자 조셉 에프 스미스가 그리스도께서 영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르치셨다는 베드로의 기록에 관한 의미를 알려고 열심히 구하였을 때 이와 비슷한 내용의 계시가 그에게 주어졌다. (교성 138편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시현 참조)

초대 교회의 대부분의 교부들은 시간

을 강조하고 다시 그리스도가 영의 세계에 내려가서 여호와로서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시던 때로부터 그의 제자들과 예언자들을 불러 선교 사업을 행할 자들을 조직하셨음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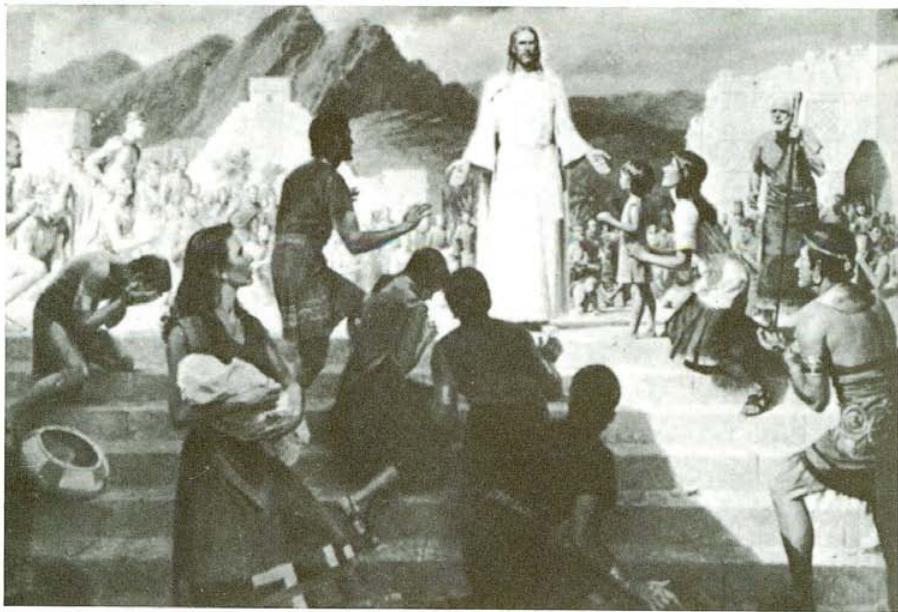
나는 구세주의 이러한 역할에 관계되는 필수적인 의식은 죽은 자를 위한 침례, 곧 대리 침례라고 그 친구에게 말했다. 나는 또한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육체적인 부활의 실제에 대한 증거로서 이 의식을 인용하며 말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고린도전서 15:29) 이 대리 침례는 비교적 도회지 중심 지대의 철학자들에게 물들지 않은 로마 제국의 농촌 지역에서 잔준하여 4세기 또는 그 이후까지 계속되었다.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일곱번째 역할에 대해서는 공통된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그가 마리아와 베드로와 그 형제들에게 또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 외에 갈릴리에서 고기잡이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신 사실과 끝으로 그가 승천하신 사실에 대해 토론했다. 나는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시간을 활용하여 그의 사도를 가르치셨음을 그 친구에게 알려 주었다. 이러한 가르침의 주제가 무엇이든, 그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실체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남겨 주었다. (그는 형제들에게 나타나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눅 24:39]고 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오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리고 승천 하실 때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 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행 1:11)

그 친구는 구세주의 여덟번째 위대한 사명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상태에 있었다. 나는 주께서 유대인에게 하신 다음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서반구에서의 주님의 성역에 대해 설명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요한복음 10:16) 나는 친구에게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을 이 대륙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고 말했다.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로 인하여 나의 이름이 영화로움을 받았으니”(니파이삼서 11:7) 나는 예수께서 어떻게 그가 동방에서 세운 그와 똑같은 교회를 서반구에서 조직했는지 설명했다. 열두 제자가 부름을 받고 성임되었으며, 소경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걷는 위대한 기적이 행해졌다. 그곳의 자녀들은 동방에 있는 사람들은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했다. 예수님은 1개의 참조 성구만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 지파의 본질과 역할에 관해서 설명하였다. 성찬 의식이 제정되고 성신이 주어졌다. 그리고 결국 3일간의 성역을 마치고 예수님은 승천하셨다.

나는 우리가 단지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 외에는 거의 아는 바가 없는 주님의 아홉번째 사명에 관해서 말했다. 예수께서 니파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할 다른 양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니파이삼서 16: 1-5 참조) 따라서 우리는 그와 같은 성역에 관한 기록은 많이 갖고 있지 않지만, 주님의 성역으로 인도되었던 다른 백성이 있었음을 틀림없다.

구세주의 열번째 사명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신 것이다.

그 사건에 대한 간증을 통해 나는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께 어떻게 참된 교회로 인도해 달라고 간구했는지 설명했다. 나는 첫번째 시현에 대하여 말했다.

아버지와 아들이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신 일, 그때부터 하늘사자들이 요셉 스미스에게 임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상에 다시 세울 수 있는 복음의

지식과 신권의 권능을 회복하여 절정의 시기에 구세주께서 친히 그의 교회를 세우신 일에 대해서 설명했다.

나는 주님의 열한번째 사명으로서, 주께서 첫번째 시현에 이어 다른 백성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신 일과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을 포함하여 다른 예언자에게 나타나신 일,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그의 교회를 주님이 직접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해서 나의 친구에게 말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친구에게 아버지의 위대한 계획 중 마지막 것이 되며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역할에 관해 설명했다. 그것은 물론들이 믿고 있는 사실, 즉 주님이 아버지의 지시대로 그가 창조하신 지상을 통치하려 오시는 그의 재림이라고 말했다. \*

# “저는 당신의 가정 복음 교사인 휴즈 형제입니다”

마티네 베이츠

내 가 어린 동생 로레인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향긋한 비누 냄새가 나는 방음된 병실이었다. 동생은 살균된 흰 천이 덮여 있는 커다란 금속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 주위는 산소 탱크와 튜브와 여러 가지 장비로 들려싸여 있었다. 의사들은 동생이 자신의 병세에 관해 알고 있다고 부모에게 말했다.

동생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엄마, 난 죽게 될 거예요.”라고 말하며 식구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우리는 이미 기도하는 방법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

동생이 죽기 전날 밤, 엄마와 아빠가 잠시 휴식을 취하러 나간 동안, 나는 동생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동생은 혼수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의지력으로 동생을 살려 보려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산소 흡입용 밀폐 텐트 밑으로 동생의 수척한 손을 꼭 잡아 주었다. 그리고 내가 동생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가에 생각이 미치자 목이

메었다. 우리는 10년 동안 멀어져 살았다. 나는 홀로 혼자 아파트에서 생활하며 얼마나 인생을 즐기며 살았는가!

몇 분 후에 나는 어둑한 병실로 누가 들어오는 인기척을 느꼈다. 나는 약간 벗겨진 머리에 부드러운 눈매와 다정한 미소를 머금은 어떤 사람이 들어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다. “저는 당신의 가정 복음 교사인 휴즈 형제입니다. 이제 겨우 찾아냈군요.”

“형제라니? 아……물론이구나.” 하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가정 복음 교사들은 언제나 짙은 색깔의 양복을 입고 찾아오는 좋은 사람들로서 대화를 나눈 뒤 곧 정중하게 떠나곤 했다. 혹시 선교사들이 그랬던가? 하여튼 우리는 비활동적이었으며 이 도시로 온 이래로 2년 동안 사실상 교회 외의 접촉을 피해 왔다. 나는 그가 어떻게 우리를 찾아 온지 궁금했다.

“좀 어떻습니까?”하고 그는 동생의 안부를 물었다. 그는 부드럽고 밝은 미소를 지었고 눈빛으로 거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 같았다. 나는 그가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 자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가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물어 보는 것이 아님을 느낄 수 있었다. 어쨌든 나는 그가 참으로 걱정하고 있음을 느꼈다.

어떤 이유에선지 내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의사가 알려 준 절망적인 증세와 여러 가지 합병증에 대해 그에게 상세히 이야기함으로써 그를 놀래 주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러한 심술궂은 말은 한 마디도 나오지 않고 종잡을 수 없이

눈물만 쏟아졌다.

그날 밤 휴즈 형제가 한 말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다만 그가 떠날 때쯤 해서 로베인이 어디선가 살게 될 것이며, 그녀의 금발 머리와 수척한 어린 육신은 잠시 동안 그녀가 몸 담았던 집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그가 그곳에서 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해도, 아버지가 그랬듯이 그녀를 안아 줄 사랑하는 사람에게 팔을 벌리며 달려가는 그녀의 모습을 나는 마음속으로 그려 볼 수 있었다.

로베인은 우리 곁을 떠났으나, 휴즈 형제는 계속해서 찾아왔다.

일년 후, 우리가 신전에서 가족으로 인봉될 때 로베인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영의 증거하심으로 알고 우리는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나는 신전에서 결혼했다.

나는 종종 로베인에 대해 생각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고 우리에게 비극이란 영원한 소망에 의해 소멸된다 는 참된 길을 다시 한번 보여 준 훌륭한 가정 복음 교사를 생각하게 된다.\*

## 가정 복음 교사의 축복

데리스 잭 스토크스

나의 가족은 비희원이었다. 나는 26 세가 되던 1976년 8월에, 나의 가정 복음 교사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이 놀랍게도 수개월 후에 성취되었다. 그 당시 나의 신앙은 강했지만 반면에 마음에는 큰 부담을 안고 있었

다. 나는 그 무렵 자신의 성품과 관련된 문제로 큰 시련을 겪었다. 또한 나는 영원한 의로운 동반자를 찾고자 소망했다. 나는 영적이고 학문적인 것에 대해 같은 관심을 나눌 수 있는 남편을 원했으나, 타스마니아에는 교회회원이 적었으므로 그러한 사람을 찾기는 좀 힘들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연말에 미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나는 가정 복음 교사인 제이 이 프레블 형제와 나의 이러한 계획과 개인적인 문제에 관해서 충분히 상의를 했다. 우리는 함께 금식을 한 다음, 그가 나에게 축복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그 축복에서 그는 내가 그해 말에 미국으로 여행할 것과 떠난지 3개월 이내에 영원한 배우자를 만나게 될 것, 또한 그 배우자는 신권 소유자로서 올바르게 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나를 필요로 하리라는 것과 모든 것이 내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결국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내가 집을 떠나 있을 동안 신전을 방문하여 엔다우먼트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 두 사람은 이와 같은 구체적인 축복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미래에 대한 이해의 문을 열어 주셨음을 성령의 증거로 확신하게 되었다.

12월 초, 내가 떠날 때, 훌륭한 가정 복음 교사인 프레블 형제를 포함하여 많은 친구들이 나를 전송하러 비행장까지 나왔다. 프레블 형제는 내게로 다가와서 그가 꿈 속에서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는 키가 작고 푸른 눈동자에 머리카락은 적황색이었다고 했다. 나는 한편 기대에 차고 한편은 초조한 마음

으로 비행기에 올랐다.

미국에서의 최초의 몇 주 동안은 아름답고 훌륭한 경험이 된 엔다우먼트를 받는 것으로 27번째 생일을 맞이했다. 그러는 사이에 3개월이 흘러가 버렸다. 1월 말까지도 “그”를 찾을 만한 짐새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국내 사정이 심상치 않고 전강이 좋지 못해 나는 2월 중순에 타스마니아로 돌아가야만 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말할 수 없이 기쁜 일이었지만 (나는 심한 향수 병에 걸려 있었다.) 다른 몇 가지 이유로 크게 실의에 빠져 있었다. 나는 하나님을 또한 내 자신의 합당성을 의심하기에 이르렀다.

집에 도착하자,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간구했다. 나는 최근 상당히 오랫동안 결장했으므로 더 이상 강의를 받을 수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법과 대학에 등록하기로 결심했다. 강의는 3월 초에 시작되었다.

법과 대학에 등록한 첫날 어느 조교와 함께 수강할 강의를 조사하고 있었다. 그때 상당히 거칠게 보이는 턱수염을 기른 어떤 사람이 우리가 있는 곳으로 와서는 무뚝뚝하게 내가 어느 강의를 들어야 하는지를 말해 주었다. 바로 그의 강의였다. 그를 따라 강의실로 들어가며 나는 조교에게 컷속말로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지요?”라고 물어보았다. “그는 스토퍼스 교수입니다.”라고 그녀는 대답했다. 첫 강의를 듣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이 사람은 키가 작고 푸른 눈이며, 적황색 머리에……그리고 우리의 학문적인 관심이 똑같지는 않다 해도 적어도 그 때문에 한 강의실에 있게 된 것

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설마,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아니겠지. 이 사람은 회원도 아니고 너무 외골수인 것 같고, 더구나 학자 타입의 사람은 쉽게 교회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マイ클 ストوك스는 약 1주일 후에 나에게 와서 함께 밖에 나가자고 했다. 그러나 나는 그의 청을 사양했다. 그러자 그후로 그는 다시 청하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후 그가 점심 식사를 함께 하자고 말했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그 청을 받아들였다. 나는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곧 알게 되었다. 그는 참으로 친절했고, 인정도 많으며, 특히 재능이 많고, 또한 옥스포드 대학에서는 로드스 장학금을 받아 공부하여 법학사 학위를 받았고, 일류급의 스포츠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교회 회원은 아니었다.

나는 2개월 뒤, 영의 지시를 받은 다음에, 그와 결혼했다. 다시 2개월이 지나자, 그는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고, 후에 우리는 뉴질랜드 신전에서 현세와 영원을 위한 인봉을 받았다. 우리는 두 팔을 갖는 축복을 받았다. 돌이켜 보면 내가 미국을 떠난 지 2개월 3주 6일 만에 우리는 서로 만났다. 대부분의 경우 회원이 비회원과 결혼해서 비회원을 교회로 인도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배우자를 교회로 인도하고 있다. 나는 영의 인도에 따르는 것이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경우에는 그것이 확실한 대답이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신다. 다만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에 따라 하실 뿐이다. \*

# 검은 구름을 헤치고

캐시 월콕스

**총** 관리 역원이 지역 대회가 위스콘신 주 매디슨에서 열리게 된다고 발표했을 때, 우리는 240킬로미터나 되는 거리를 여행할 돈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그곳에 참석하게 되리라고 확신했다. 아니나 다를까 7주 후에 남편의 고용주는 매디슨으로 트럭을 몰고 갈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부수입으로 우리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부근의 식료품점까지 차를 몰고 갈 때에도 길을 잘 잊어버리는 편이지만 남편은 내가 자녀들과 함께 우리 차를 타고 트럭만 잘 따라가면 무사히 그 곳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디슨까지의 여행은 평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대회는 우리가 구제주와 서로에게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홀륭한 축복이 되었다.

대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심한 뇌우를 만났다. 비 바람으로 시야가 잘 보이지 않아 10분간 트럭을 놓쳐 버렸다. 우리는 멈추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야 할 길을 알려 달라고 간구했다. 5분 후 우리는 다시 남편을 뒤쫓을

수 있었다. 그러나 폭우가 계속 쏟아져 앞을 볼 수 없었으므로 우리는 다시 트럭을 놓쳤다. 두번째 기도를 드린 우리는 비교적 인적이 드문 뒷길로 빠지는 곳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는 낯선 지역에서 전혀 인적을 찾을 수 없었고, 폭우는 점점 심하게 쏟아졌다. 나는 지도도 없었으며 몇 시간이나 걸리는 집까지 어떻게 가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마음속으로 평온함을 느꼈고 계속해서 성신의 속삭임을 들었다.

30분 후에 하늘은 완전히 암흑으로 변했고 심한 폭우가 차를 빼렸다. 나는 우리는 무사할 것이라고 어린 자녀들을 안심시켰지만 소용이 없었다. 나는 우리가 어떤 집이나 상점을 찾게 되면 우리가 바른 길로 들어섰는지 알아보겠다고 아이들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가 가려는 곳에 회오리 바람이 일겠다는 경고가 있었다며 이 길을 계속 여행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으므로 아이들의 불안은 더 고조되었다.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를간이나 놀라운 대회를 가질 수 있었음과 그 대회에 우리가 함께 참석할 수 있었음을 감사하고 신권에 대해 감사했다. 나는 자녀들이 안심할 수 있고 하늘에 계신 그들의 아버지의 사랑과 확신을 느끼게 해 달라고 간구했다.

그런 후 우리는 그 길로 계속하여 달리며 노래를 부르기로 했다. 우리는 재미있는 노래와 포크송과 찬송가를 불렀다.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한 지 얼마 안되어 자동차 속에는 평안이 깃들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하나씩 곤란 짐에 떨

---

어졌다.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칠혹같은 어둠과 폭우 속을 뚫고 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나의 마음은 놀라우리 만큼 평온했다. 나는 계속해서 그 길로 가라는 영의 속삭임을 들었다. 주위가 매우 조용해졌고 차 안에서 들리는 소리라곤 나의 심장의 고동 소리와 아이들의 조용한 숨소리뿐이었다. 전에는 그러한 정적을 느껴 본 적이 없었다. 그때 갑자기 어두움이 우리 주위를 에워싸더니 무서운 비 바람이 차창으로 몰아쳤다. 나는 숨이 막혔다. 바로 그때 마음속에 다음과 같이 귀에 익은 하늘 찬양대의 노래 소리가 들려 왔다.

검은 구름이 우리 뒤 덮고  
우리 화평을 위협할 때  
우리 앞에 기쁜 소망 구원  
가까이 있는 줄 믿으며

(찬송가 59장)

나는 화평스런 느낌이 마음속에 가득 해짐을 느끼고는 다시 한번 내가 개인적인 계시를 받았음을 깨달았다.  
우리는 집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나중에 뉴스를 듣고서 회오리 바람이 몰아쳐서 길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했지만 남편은 회오리 바람이 일기 몇 분 앞서 그곳을 지나갔으며, 성령이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모는 차는 회오리 바람의 중심부로 말려 들게 되었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를 알고 계시며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주님은 모든 도로망을 살살이 알고 계셔서 우리가 그분께 귀를 귀울이기만 한다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음을 감사드렸다.

\*

검은 구름이  
우리 뒤 덮고  
우리 화평을  
위협 할 때  
우리 앞에 기쁜 소망 구원  
가까이 있는 줄 믿으며  
지난 날이 입증해 주는  
하나님 의심치 않나니  
시온을 대적한 악인들  
결국은 모두 다 패하리  
(찬송가 59장 2절)

**우** 리가 사회 과학, 지질학, 수학... 음악, 생물학, 식물학, 언어학, 법률 등 무엇을 연구하든지 우리는 누구나 예외없이 일, 곧 하나님의 일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나는 30여 년 전의 나의 대학 시절을 기억합니다. 남들은 나를 “성숙한 학생”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3년 6개 월간 영국 공군에 복무했고 그후 결혼

해서 어린 딸 하나를 둔 아버지였으므로 이와 같은 특별한 별명이 붙은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내게 성숙이라는 말을 붙여 준 친구들은 그 말의 뜻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완전히 발달된 상태 또는 절”이라는 공식적인 정의가 붙어 있다는 것을 검토해 본 것은 아닙니다. (웹스터스 뉴 칼리지에이트 사전, 스프링필드,

## 하나님의 일

데릭 에이 커스버트



매사추세츠, 지 앤드 시 메리엄 컴퍼니,  
1977년, 710페이지)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나는 과연 성숙한 학생이었을까요? 인도, 베마, 홍콩에서의 군복무가 나를 성숙하게 했을까요? 전쟁의 경험은 확실히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을 늙어 보이게 하며 여행은 확실히 우리의 지식을 증가시켜 줍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반드시 우리의 이해력이 증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귄 연인과의 훌륭한 결혼 생활이 나를 성숙하게 한 것일까요? 결혼 생활로 확실히 나는 더 큰 책임을 지게 되었고 많은 기회가 주어졌으며, 뜻깊은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파일이 성숙해서 잘 익었을 때는 잘 알아볼 수 있어 무르익었음을 쉽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성숙됩니까? 젊은 사람이 늙은 사람보다 더 성숙해지거나, 키가 작은 사람이 키 큰 사람보다 더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소년 예수가 성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로 하시며 물기도 하시니”(눅 2:46) 유대의 율법사들은 그의 성숙함을 보고 놀랐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해야 할까요? 나는 고등학교와 대학을 다니면서 수많은 시험을 치렀습니다. 성적표를 받아 보면, 어떤 때는 기대에 못미쳤고, 어떤 때는 깜짝 놀랄 만큼 높은 점수를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학문적인 성취가 성숙의 척도가 될까요? 가마리엘의 문하생으로서, 배운 것을 이용해서 기독

교인을 박해해 온 학식 많은 다소의 사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그가 기적적으로 개종한 후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린도전서 2:2)고 말한 것은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나는 학창 시절을 강의실이나 도서관에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체육 행사를 위해 훈련받느라고 많은 시간을 트랙에서 보냈읍니다. 그 결과 나는 육상 경기뿐만 아니라 력비, 미식 축구, 크리켓 팀의 선수로 뽑혔읍니다.

그러면 스포츠 면에서의 성취가 성숙의 척도가 됩니까?

나는 결혼한 지 2년만에 이혼한 어떤 젊은 여성에게서 편지를 받은 일이 있읍니다. 그녀는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남편은 스포츠에만 전념하고 있었어요. 그는 아내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가 야구 선수로서는 위대했을지 모르지만, 결혼 생활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을 수 있읍니다.

사회적인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나는 학창 시절에 사회적인 교양과, 예술에 대한 감상력과 타인과의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켰읍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숙의 기본이 될까요? 혼히 있는 일이지만, 구세주의 생애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읍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읍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누가복음 2:52)

바로 여기서 그 열쇠를 찾을 수 있읍니다. 그것은 인간이 노력하는 네 가지 분야, 곧 지적, 육체적, 영적, 사회적

인 면에서 균형있는 발전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1948년부터 1950년까지 영국 노팅엄 대학에서 학창 시절을 보낼 때만 해도, 나는 말일성도가 되는 행운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나는 생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 발전해 나가고 노력해야 하는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학문적인 면, 체육과 사회적인 면에서는 제대로 면모를 갖춘 편이었으나 영적인 면에서는 다소 부족했읍니다. 그것은 알맹이 없는 종교의 형상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활동적이었으나, 기본되는 교리에 대한 질문을 받는 경우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진정한 의미에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24세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당시 나는 경제학 및 법학과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섬유, 프라스틱 분야의 대회사의 경영을 익히는 훈련생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몇 주 후에 몇몇 선교사들이 우리집을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사실상 주님은 세 명의 선교사를 우리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나를 개종시키기가 쉬운 일이 아님을 주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더구나 아내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이

름이 모두 똑같은 엘더(장로)라는 것이였습니다.

킴볼 대관장님이 제시한, 우리가 회원 선교사가 되는 방법을 보여 주는 훌륭한 필름스트립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정 증진을 보다 쉽게 행할 수 있는 몇몇 상황에 대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시 생활 환경의 변화로 인해 복음의 메시지를 쉽게 받아들이게 된 전형적인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으며 그 무엇보다 두번째 아기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생 동안 우리의 환경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생에 대한 우리의 견해는 선교사를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계획을 배웠고,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숙, 즉 완전한 발전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계획, 곧 영원한 진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배웠습니다.

선교사가 가르쳐 준 메시지의 진실성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가치관은 바뀌게 되었고 따라서 평가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생은 보다 완전하게 되었고 더욱 무르익어 성숙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께 엄숙하고 힘있게 전언하는 바입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특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며 구속주이십니다. 그는 예언하신 대로 자신의 교회와 복음을 회복했으며,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위시하여 성스러운 예언자를 통하여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생활에서의 변화, 특히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데서 오는 변화를 본 친구는 “여보지, 담배나 술을 먹지 않

“침례받은 것은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읍니다.”

고서는 결코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어.”라고 했습니다. 그는 파산되었고 나는 번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의 생각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침례받은 것은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이해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관련된 하나님의 일은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은 다음에 주어지는 성신을 받았고, 성신은 우리를 돋고 인도하고 위로하고 우리에게 “왕국의 평화로운 것을”(교성 36:3) 가르쳐 주었습니다.

회사에서 내게 맡겨진 첫번째 과업은 침례받음과 거의 동시에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초보 훈련생에게는 너무 빠른 승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늘의 문은 열려졌고 십일조를 내는데 따르는 약속된 축복은 우리의 작은 가족에게 부어졌습니다.(말라기 3:10 참조) 우리는 십일조의 원리에 대해 참으로 감사했으며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지끼기 쉬운 원리입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십일조를 바쳤을 때 주님께서는 나머지 10분의 9를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간증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의 소유물에 대해 걱정해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에게는 자동차도, 전화도, 세탁기도, 냉장고도, 전공 소제기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훈계와 약속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태복음 6:33) 나는 확실히 이 사실을 간증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일을 보다 현명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일도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20년이 지난 뒤 우리가 처음 살았던 집으로 가 보았습니다. 예전에 이웃에서 같이 지내던 몇몇 분은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 했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더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의 내가 맡은 첫번째 일은 나를 경이로운 석유 화학의 세계로 뛰어들게 한 매혹적인 것이었습니다. 나는 생산과 통계와 관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곧 나는 화학자들과 엔지니어와 화학 기술자들과 어울리게 되었으며, 그들의 기술 용어를 사용하고, 공정의 과정을 보여 주는 플로어 차드를 작성하며, 견적서와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나는 원료와 부산물과 촉매 물질과 공동 생산품과 산출고와 효율성 등을 다루어야 했습니다. 일은 많았지만, 그 일은 흥미있었기 때문에 즐겁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생산 업무에 대한 이해력만이 아니라 나의 인생관이 넓어졌습니다. 공정과 하나님의 일 사이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나는 곧 석유 화학 공정은 142헥트알이나 되는 특별 사업장과 약 10,000명이나 되는 종업원이 있는 이 회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모든 공정의 시작에 불과함을 알았습니다. 공장 문을 통해 들어오는 원료와, 열차로 들여오는 유류와 화물, 자동차로 들여오는 섬유 원료와 그 외의 각종 화물들을 보고 있으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그 차량에 아름다운 섬유와 유용한 플라스틱 제품이 가득 실리어 공장

문을 나서는 것을 보고 이와 같은 기적 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의아하게 생각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 생산 공정에서 뿐만 아니라 인생사를 공부할 때에도 분명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생산 공정을 통해 장물과 같은 기름과 산더미 같은 펄프가 일상 생활에 쓰이는 많아 없어질 물건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공정이 아닙니까? 참으로 이것은 변화의 과정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존재가 되기 위해 변화되고 개종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버지와 같이 되기 위한 과정이 시작될 때,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여행을 시작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맡기셨을까요?

첫째, 우리의 예지 “바꾸어 말하면 빛과 진리”(교성 93 : 36)입니다.

둘째,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주신 영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영의 아버지”(히브리서 12 : 9)이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육신 즉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 우리의 영이 거할 수 있는 육신입니다.

넷째, 은사나 재능입니다. “온갖 선한 은사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모로나이서 10 : 18)이므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받은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가 살고 있는 “땅”(아브라함서 3 : 24)입니다.

여섯째, “헛되이 보내”(교성 60 : 13) 서는 안될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거나 변화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값진 것들은 곧 하나님의 일

과 관련된 것입니다.

구세주는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사업]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누가복음 2 : 49) 아버지의 집[사업]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도서서 1 : 39)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성숙해지는 것, 곧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얻는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마태복음 7 : 14)다고 가르쳤습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은 협착하고 좁으며 훈육과 순종을 필요로 하지만, 또한 영원한 것입니다. 예언자 니파이는 곧고 좁은 길에 들어선 후에 다음과 같이 행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너희는 온전한 희망의 밝은 빛을 품고,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하느니라. 너희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며 끝까지 참을진대, 보라 아버지께서 이르시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니파이이서 31 : 20)

석유 화학 공장으로 되돌아가 보면, 최초의 과정은 “분리” 작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름은 뜨거운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여러 종류의 가스와 유류로 분해됩니다.

나는 지금도 그렇지만, 어렸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에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충실하여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절하였으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졌습니다. 그때 왕은 세 사람이 아닌 네 사람이

상하지도 않고 불 가운데 다니는 것을 보고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네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다니엘 3:25)

우리가 비판의 열기와, 유혹의 압력과, “불화살”(교성 27:17)을 견디어 낼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결친 덕성의 갑옷에 조그마한 틈이라도 생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진리와 의와 신앙에 의지함으로써 상처를 입지 않고 살아가며,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을 통하여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기초가 되실 그리스도 이신 하나님의 아들, 곧 반석이신 구세주”(힐라맨서 5:12) 위에 우리가 기초를 세운다면,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은 안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안전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 대답은 예외없이 “물론, 안전하기를 원합니다.”입니다. 그런데도 왜 많은 사람들은 마치 안전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처럼 행동을 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불결하고 합당치 못한 것을 생각만 하더라도 성신은 우리를 떠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의 영은 성스럽지 아니한 성전에는 거하지 아니하심에……”(힐라맨서 4:24)

석유 화학 공장에서 얻은 경험으로 나는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자료를 갖게 되었습니다. 분리 과정에서 증유가 나오는데 그것이 정유되어 각종 유용한 석유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천여 년에 이르는 수세기 동안, 정련의 원리는 공업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특히 귀금속에서는 더욱 그려했습니다.

주님 자신은 “연단하는 자의 불”(말라기 3:2)과 같은 분으로, 우리 자신이 그를 따를 때 우리는 불순물과 찌꺼기를 걸러내 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초석으로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물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년 전, 한 달 전, 일주일 전보다 더 순수해졌는가? 정화되었는가? 불순물을 제거했는가? 우리의 발전에 방해가 되는 습관이나 버릇을 극복했는가?

하나님의 일에서는 개종의 과정뿐만 아니라 개종의 효능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산출해내는 이익은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면, 얼마나 우리의 시간을 낭비했으며 재능을 발전시키지 못했으며, 지혜를 경시했습니까? 두뇌와 영, 힘과 재능, 공간과 시간,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청지기 직분에 속합니다. 우리의 자비로 우선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잘못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데 사용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충실하며 올바르며 지혜로운 관리인은 누구든지 그 주의 기쁨에 참여하여 영생을 상속받으리라.”(교성 51:19)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성실성에 대해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더욱 충실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활동이나 연구 분야에서 여러분이 이룩한 성취에 대해 찬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더욱 부지런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발전시킨 영성에 대해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더욱 영적으로 되십시오.

나는 사도 바울의 말을 빌어 간구합

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린도전서 2:4-5)

나는 또다시 이렇게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우리 곧 마음 가운데 큰 변화를 갖게 하시어 다시는 악을 쫓으려 하지 않게 하시며 계속하여 선행을 하게 하시나이다.”(모사이야서 5:2) 이것은 베냐민 왕의 말씀으로 영향받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비유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위해 숲으로 들어가 맑은 물이 흐르는 시냇가를 거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를 감상하다가 물가로 나무 뿌리가 여기 저기 뻗쳐 나온 유통불통한 길을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넘어져서 강물 속으로 곤두박질해서 떨어졌습니다. 물은 생각했던 것보다 깊었고 그는 헤엄을 칠 줄 몰랐습니다. 그는 크게 비명을 질렀으나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해 물 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는 다시 수면에 떠올라 또 소리쳤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두 번째로 물 속에 잠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올랐을 때는 그의 소리가 더욱 약해져 누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근처를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마침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즉시 물 속으로 뛰어들어 그를 안전하게 강가로 끌어내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의식을 회복하자, 그를 구조해 준 사람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를 구해 준 사람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세히 그를 가르쳤습니다. 그후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그를 구해 주었던 사람이 그 일로 말미암아 세상을 떠났고, 구조를 받은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는 큰 슬픔 속에서도 마음속에 따뜻한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구조자에게 사랑과 감사를 나타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요한복음 14:15)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나는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며 구속주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그분이 살아 계심을 알고 있으며, 주님은 완전히 회복된 교회를 인도하시며, 예언자 곧 오늘날 우리가 사랑하는 예언자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목표, 여러분의 연구, 개인 생활과 도전, 결정과 성숙, 그리고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에베 소서 4:13)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일에 주님의 충만한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

**내**가 양로원에 들어섰을 때 할머니는 임종이 임박해 있었으나 나는 오직 할머니만을 생각하지는 않았다. 나는 할머니를 사랑했다. 그리고 할머니가 곧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슬퍼졌다.

그러나 할머니는 오랫동안 할아버지와 함께 하기를 고대해 왔으므로 할머니의 죽음은 오히려 할머니에게는 축복이 되고, 더우기 항상 충실히 생활을 하였던 할머니에게는 오래 기다려 온 보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바람

직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마음속으로 그려 왔다. 나는 중요한 한 가지 결정을 내리는 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 마음의 평안을 주십사고 간구하고 있었다. 나는 할머니의 방으로 들어가면서 이와같은 평온한 느낌을 갖게 된 것에 놀랐다. 할머니는 울고 계셨다. 할머니는 뺨으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며, 지나간 생애를 돌아켜 보면서 그녀의 생애는 주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가득차 있다고 부드럽게 말씀했다. 할



## 원저 할머니의 지혜

콜린 라일리

머니가 조용히 회상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본 나는 모든 세상 근심을 떨쳐 버리게 되었다. 나는 내가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그곳에서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 할머니는 창백하고 힘없이 죽어가고 있었으나 빛을 발하고 있었다.

내가 이전에 할머니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좋지 않게 생각했던 것도 마음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으며, 할머니에 대한 나의 태도를 설명할 말조차 생각나지 않았다. 왜 이러한 시간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일까? 나는 나의 팽팽한 손으로 할머니의 주름 잡힌 손을 꼭 잡았다. 나는 할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여쭈어 보았다. 할머니는 내가 자주 느끼기는 했으나 겉으로 나타내 본 적은 없었던 것들을 말씀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흔들며 “얘야, 내가 생각하는 것을 네가 모두 알수만 있다면.” 하시면서 할머니는 내가 다르게 보인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할머니에게 그것은 내가 눈화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알아보지 못하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나를 쳐다보지조차 않았다. 할머니는 쿨끔 창밖을 내다보시며 이렇게 말했다. “아니야, 넌 여기 들어설 때와 또 다르다. 너는 네 앞에 놓여 있는 미래를 보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지.”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머니 말씀이 맞았다.

“얘야, 너무 초조하게 굴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너를 위해 여러 가지 훌륭한 것들을 마련해 두셨단다. 그리고 그분은 너를 몹시 사랑하신단다. 너도 나처럼 성급하구나. 너는 주님께 준비되어 있을 때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를

말하고 싶어하지.”

그리고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했다. “나는 참을성이 없었기 때문에 일생 동안 주님께 성가신 존재였어. 그러나 이제 내 생애를 마치면서 주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알 수 있구나.” 할머니가 말씀을 마쳤을 때, 눈물이 뺨으로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나는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으나, 내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순간 우리는 손녀와 할머니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무엇인가를 나누고 있었다. 이로 인해서 나는 원래 할머니를 영원히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할머니와 만나게 될 때, 할머니가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를 바란다.

양로원의 계단을 내려오면서 나는 우리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실재하며, 그는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또 다른 간증을 얻었다. 그는 나를 너무나 많이 축복해 주셨다. 그 사실을 알고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내가 잘못할 때는 스스로를 책해야 한다. 그는 종오나 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충만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 많은 잘못을 범함에도 그분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신다. 그날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러한 사랑을 알 수 있었으며, 지혜와 겸손과 화평을, 또한 말할 수 없는 화평을 볼 수 있었다. 나는 그때 느꼈던 것을 영원히 남게 될 돌판에 새겨두고 싶다.

편집자 주 : 콜린은 할머니가 돌아가신지 3년 뒤에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다. 위의 이야기는 그녀의 일기에서 발췌한 것이다. \*

**내**가 열 다섯 살 때였다. 우리는 연 차 대회의 신권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피자를 파는 상점 앞에서 차를 세웠다. 그때 내가 배운 십 일조에 관한 교훈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나의 부친과 두 형들과 나는 몹시 시 장기를 느꼈다. 우리가 음식을 기다리

고 있을 때, 나의 한 친구가 식탁을 치우는 일을 하는 것을 보았다. 내가 그에게 어떻게 그 자리를 구했느냐고 묻자, 그는 지금도 이 상점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한다고 말해 주었다. 몇 분 후에 그는 다시 와서 지배인이 나를 지금 곧 보자고 한다고 말했다. 내가 깨끗한 셔츠와 넥타이를 매고 있었으므로 지배인

## “나를 시험하라”

스캇 알 메이어즈



은 나의 인상을 좋게 본 것 같았다. 면담은 그런 대로 잘 끝났다. 내가 일요일에는 일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그는 그때는 내 대신 일할 사람이 많으므로 별 문제 가 없다고 했다. 나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일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후 2년 동안 나는 점차 승진하게 되어 요리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나의 교대 근무가 시작되었을 때, 나의 근무 계획 일자가 계획표에서 빠져 있음을 알았다. 지배인은 정상 근무 시간을 다 이행하려면 일요일에도 일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한 번 일요일에 일했으나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그 때부터 주일에는 일하기를 거절했다. 그때부터 나와 지배인과의 관계가 악화 되기 시작했고 나는 다른 직장을 구하기 시작했다.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데는 상당히 철저했으나, 다른 계명, 곧 십일조의 법을 지키는 데는 소홀했다는 사실은 흥미있는 일이었다. 부모님이 내게 권고하지 않았으면, 전혀 십일조를 바치지 않았을 것이다. 그때 나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는 다음 주에 봉투에 얼마간 돈을 넣었다. 당시 나는 내가 열심히 번 돈 중에서 10분의 1을 바치는 의미를 알 수 없었다.

나는 계속 직장을 구했으나 찾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열심히 기도하면 직장을 구하도록 도와 주실 것임을 확신했다. 어느 날 저녁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만일 내가 나의 현 직장에서 번 돈에서 십일조를 바치지 않는다면 주께서 내가 다른 직장을 갖도록 도와야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나는 또한 두 가지 성구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봇지 아니하나 보라”(말라기 3: 10)

“나 주는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너희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으나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약속을 받지 못하느니라.”(교성 82: 10)

나는 그 계명에 순종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여태까지 바치지 못했던 십일조를 바치기 위해 은행 예금에서 상당한 액수를 찾았다. 나는 바로 그날 저녁에 그것을 감독님의 집으로 가져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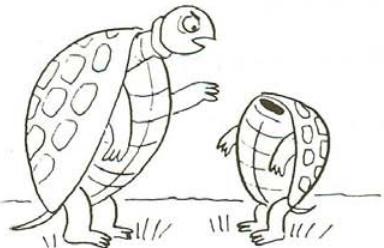
더 좋은 직장을 구하고 있던 나는, 자동차 소음기 설비상에 지원했다. 그때가 1월이었는데 그들은 12월까지는 다른 종업원이 필요없다고 말했다. 십일조를 바친 지 이를 후에 그 상회에서 전화로 내일부터 일을 시작하라는 제의를 해 왔다. 선교사로 떠나기까지 나는 피자 상점에서 일할 때의 3배나 되는 돈과 그 외의 수당을 받았다. 나는 선교사의 비용의 절반을 나의 힘으로 댈 수 있었다. 게다가 내가 선교 지역으로 나가 봉사한 지 약 1년 후에 소음기 설비상회의 고용주가 나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선교 비용의 나머지 반을 자신이 대 주어도 괜찮은지 문의해 왔다.

이러한 모든 일을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결국 복음의 원리에 따라 생활하려 했으므로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십일조는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의 문을 열어 주는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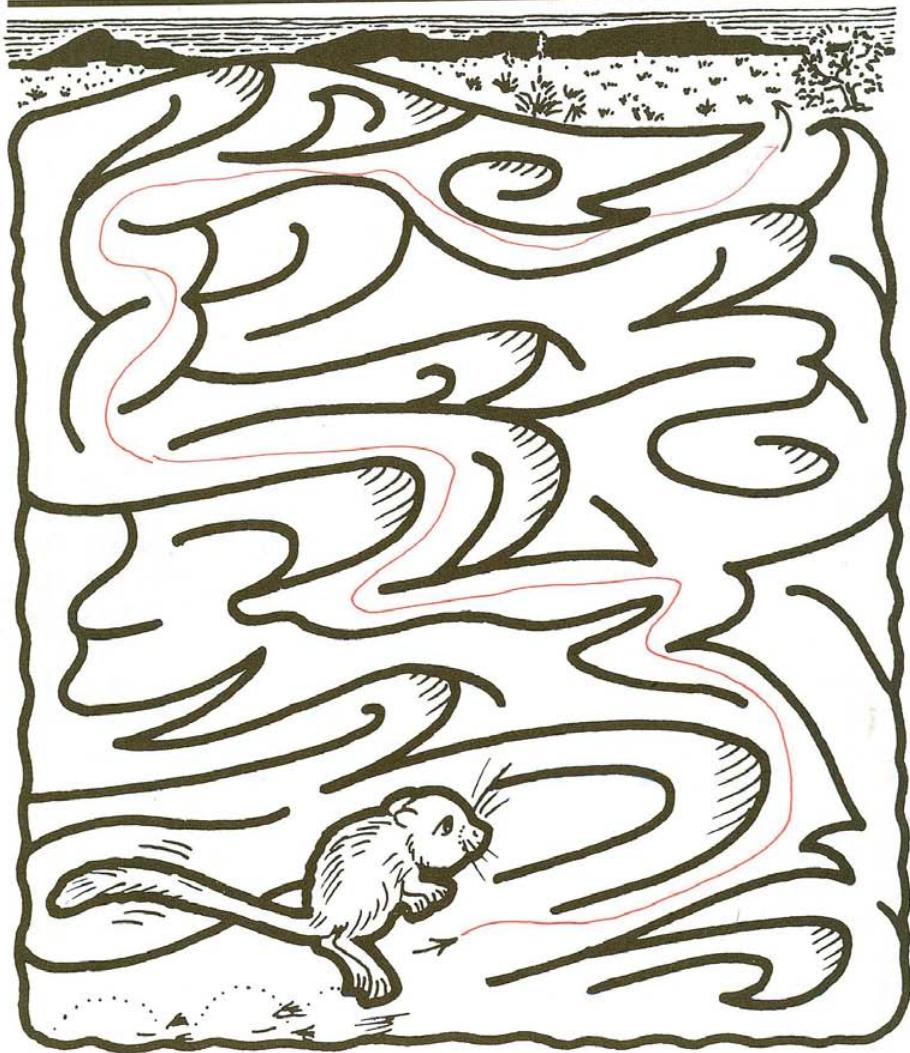
# 심심풀이

로버터 엘 페어톨

캥거루우 쥐가 모래  
언덕을 깅총깡총 뛸 때  
12.5센티나 되는 꼬리가  
그의 작은 몸의 균형을 잡아 준답니다.  
그가 땅속의 어느 굴로 나가야  
마른 씨앗과 잎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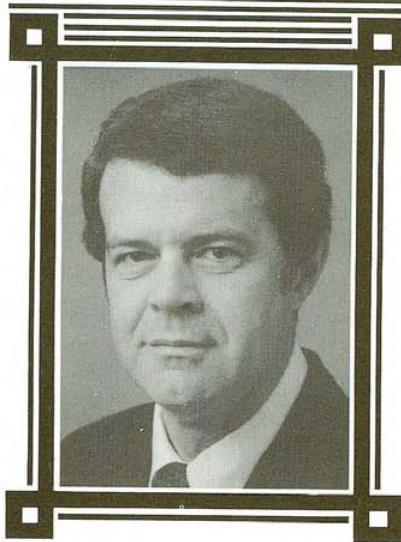


“내가 말할 때는 나를 좀 보라구.”





# 친구가 친구에게



줄린 메레디스가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일원인  
로널드 포울맨 장로님과 개인 접견한 기사에서

나는 참으로 어린 시절을 즐겁게 보  
내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은 나에  
게 고생스러운 때였기 때문입니다. 나  
는 여섯 형제, 자매 중 맨이었으며, 때  
로는 그런 책임이 좀 원망스럽기도 했  
습니다.

나는 항상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했으므로, 한시도 마음 편  
히 즐길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나는  
남의 집에 가면, 그 집의 장남에게  
“장남이 된 기분이 어떠냐?”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이  
야기도 나누곤 합니다.

“나는 학교에서 공부하기를 즐겼읍니  
다. 이 일은 나의 의욕을 불러일으켜  
주었습니다. 읽는 법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그때까지의 생활에서 가장 큰 만  
족을 느꼈습니다.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내게는 가장 흥  
미있는 일이었습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나는 신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포울맨 장로는 자신이 늘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경전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주 다리미질을 하시곤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다리미질을 하실 때 나는 어머니 곁에 앉아 있고 는 했지요. 그러면 어머니는 나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께서 내게 남겨 주신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교회에서 활동적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의 생활은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한 시기였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4개의 방이 달린 집에 살았습니다. 그 집에는 방 하나에 침실 하나 그리고 작은 욕실이 달려 있었습니다. 지금 나는 세 개의 욕실이 달린 맨션에 혼자 살고 있는데, 지금도 그 집을 생각해 보면 웃음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경기 동안 곤경을 겪었습니다. 아버지가 일년 반 동안 실직 상태에 있었으므로 몹시 걱정을 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어머니께서는 내가 장남이었으므로 나를 많이 의지했습니다. 나는 어린 소년 시절부터 우리 가족의 재정 상태, 즉 골석탄 값이 얼마인가 몇 달 동안 이것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지 등을 잘 알고 있었답니다.

포울맨 장로는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자녀와 손자들의 어린 시절을 지켜 보며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내게도 6명의 손자가 있고 곧 한 명이 더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장손은 일곱 살이 되었습니다. 나는 할아버지가 된 것을 참으로 기뻐하고 있

“우리는 때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에만  
우리를 사랑하시며  
불순종할 때는  
덜 사랑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느낌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지는 느낌을 갖게 되므로.  
사탄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란답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옵니다. 그것으로 어느 정도 내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위안을 삼고 있읍니다. 그것은 훌륭한 기회입니다.

“부모는 특별히 훈련받은 것은 아니지만 음악에 소질이 있었읍니다. 당시 우리 집에는 아버지가 갖고 계신 우쿨렐레 이외에 다른 악기는 없었읍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함께 노래하기를 좋아했읍니다. 내가 십대가 되었을 때 부모님이 처음으로 전축을 사오셨읍니다. 그것은 참으로 멋진 일이었으며 모든 식구들이 다 즐겨 음악을 들었읍니다. 내가 나이가 더 들었을 때, 우리는 피아노를 구입했고 어린 아이들은 피아노를 배우기도 했읍니다. 나의 아내는 음악 전공이었읍니다. 우리가 데이트 할 때 그 때문에 더 그녀를 좋아하게 되었읍니다. 나는 앉아서 아내가 바하의 곡을 연주하는 것을 듣기를 좋아했읍니다.

“포울맨이라는 성은 화란 성입니다.”라고 포울맨 장로는 설명했읍니다. “나의 조부님은 화란에서 태어났으며, 10 대의 젊은 시절에 할아버지는 화란을 떠나 남아프리카로 갔읍니다. 그곳에서 할아버지는 스코틀랜드 아가씨와 결혼했읍니다. 그 당시 할머니는 남아프리카에 살고 있던 영국 가정의 가정 교사로 일했읍니다. 나의 조부모님은 남아프리카에서 아이를 하나 낳고 그후 영국으로 되돌아갔읍니다. 영국에서 다시 한 자녀가 태어났고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태어나신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우로 이사했읍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선교사들이 찾아와 할머니께서 문을 열어 주었읍니다. 그들은 온수 급수 시설도 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싸구려 아파트 3층에 살고 있

었읍니다. 선교사들 중에 에이 지 리차즈라는 장로가 있었읍니다. 그는 세상을 끌 때까지 우리 가족과 가까이 지냈으며, 나는 언제나 그를 좋아했읍니다.

“그후에 나는 세 동생과 마찬가지로 화란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읍니다. 나의 아버지도 역시 화란에서 선교사로 봉사했읍니다. 선교 사업의 경험은 내게 꽤 귀중한 것이었읍니다. 그 일로 해서 나는 할아버지의 형제 자매들 몇 분을 만날 수 있었고 외국에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포울맨 장로님께 세상의 어린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고 계시며 아무런 조건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비록 여러분이 나쁜 일을 행할지라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물론 나쁜 일을 행하면 슬퍼하시겠지만, 그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했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 자주 기도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에만 우리를 사랑하시며 불순종할 때는 덜 사랑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느낌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지는 느낌을 갖게 되므로, 사탄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란답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

여름 햇볕이 내 등을 뜨겁게 내려 죄었다. 이마에서는 구슬 같은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내가 나무 그루터기 사이에 막대를 박아 한쪽 끝을 밀어 넣고 있을 때, 어머니의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토드, 아버지 오셨다.”

나는 막대를 팽개치고 부드러운 누런 들판을 지나 집으로 향해 달려갔다.

시트가 널려 있는 빨래줄 아래로 몸을 숙이고 집 주위를 돌다가 하마터면 포장 마차에 부딪칠뻔 했다.

“여기다, 얘야.” 아버지가 미소지으며 말했다. “이 밀가루 부대를 엄마에게 갖다 드려라.”

우리가 마차를 풀자마자 나는 말을 울 안으로 집어 넣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엄마에게 무슨 꾸러미를 내어밀고 있었다.

“아직 표백하지 않은 옥양목 20마요.” 하면서 아버지는 종이로 포장한 꾸러미를 엄마에게 건네 주었다.

엄마는 미소를 지으면서 “고마워요, 여보.”하고 기쁜듯이 대답했다. 그런 다음 엄마는 끈과 종이를 풀어 그것을 나에게 주면서 “이 끈은 공에 매고 종이는 공부할 때 사용하거라.” 하셨다.

나는 끈을 감으면서 나머지 짐을 정리하는 것을 지켜 보았다. 바로 그때 아버지는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 넣어 계피 사탕을 꺼내셨다. 아버지는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그 사탕을 내게 주셨다. 입 안에 침이 고였다. 그러나 내가 막 사탕을 깨물어 먹으려 할 때

# 유산

베티 루 멜



엄마가 점심 시간이 되었다고 알려 주셨다. 우리는 아버지가 축복을 하실 동안 고개를 숙이고 식탁에 앉아 있었다. 식사를 하면서 나는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읍내에서 에드 비슬리를 만났소. 그는 우리에게 땅을 팔라고 했어요.”라고 아버지가 말했다.

뜻밖의 이야기에 나는 느긋이 앉아 식사를 하시는 아버지를 보다가, 어머니 쪽을 보았다. 어머니는 곧 소리를 지를 것 같았습니다.

“그래, 뭐라고 대답했어요?”라고 어머니는 불멘 어조로 물었다.

“글쎄.”하며 아버지는 다른 고기 덩어리를 천천히 집어 들었다. “그는 돈을 많이 줄 텐데.”

어머니는 눈을 점점 더 크게 뜨며 아버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러나 아버지는 천천히 뜰을 들여가며 이야기했

다. “당신은 그 돈으로 사고 싶은 것을 다 사고도 남을 텐데.”

“여보!”하고 어머니가 소리쳤다. “도대체 무어라고 대답했는지 말씀하시라니까요?”

아버지는 천정을 쳐다보며 장난스럽게 눈을 깜박였다. “안된다고 했오.”하고 그는 짧게 대답했다. 어머니의 얼굴은 금방 환해졌다. 어머니는 아버지께로 가서 얼굴을 마주 보며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여보, 때때로 나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면서 점심 식사를 마쳤다.

아버지는 도끼를 들고 나무 그루터기



로 되돌아갔다. “네가 이것을 모두 파냈구나! 잘했다. 그런데 너 오늘 글씨 쓰기 연습은 했니?

“예, 아빠. 그렇지만 글씨 쓰기는 재미없어요.”하고 말했다.

“재미없다니. 왜 글씨 쓰기가 싫을까?”하고 아빠는 웃으셨습니다.

나는 떼(잔디)를 걷어차며 어깨를 으쓱하였다. “눈으로 보면 어떻게 써야 할지 잘 알겠는데, 손으로 써 보면 잘 안 되거든요.”

아버지는 다시 웃으면서 도끼를 땅에 내려놓았다. 아버지는 셔츠를 벗고 그루터기를 바라보았다. “그건 네 손이 아직 훈련이 멀 되었다는 뜻이다. 계속 해 보거라, 토드. 자꾸 연습해 보면 홀륭하게 훈련되는거야.” 아버지는 그루터기 옆에 무릎을 꿇고 뿌리를 더듬었다. “네가 많이 파냈구나. 그러나 아직 큰 뿌리가 묻혀 있어. 내가 그것을 도끼로 찍어 내어 느슨하게 만들면 함께 그루터기를 뽑아 낼 수 있을게다.”

아버지는 도끼를 집어 들었고, 나는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지켜 보았다. 뿌리가 쪼개지자, 아버지는 내 옆에 앉아 쉬었다.

“토드, 참 힘든 일이지.” 아버지가 숨을 내쉬며 웃었다.

“아빠, 언젠가는 농장을 파실 생각이세요? 그러면 아빠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되지 않아요?”하고 내가 물었다.

아버지는 잠시 말씀이 없더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돈이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지만 땅은 영원한 것이다. 토드, 난 절대로 팔지 않을거야. 우리는 그걸 네게 유산으로 남겨주겠다.”

“유산이 무엇인데요?”

“유산이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려주는 귀중한 것이란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네가 결정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의 견해는 각각 다른 법이지. 에드비슬리는 땅을 조금씩 나누어 파는 것으로 생각한단다. 그러나 땅이란 재미 있는 것이지. 네가 그 권리증을 갖게 된다 하더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너의 것은 아니란다. 너는 그것을 사용할 권리만을 갖는 것이야. 아버지는 흙을 한 움큼 집어 들었다. “모든 식물의 성장을 약속해 주는 이 냄새를 맡아 보거라. 이것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다. 우리가 떠나간 후에도 이 땅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된다. 이 땅을 일구어 나가는 동안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정성스럽게 돌보고 가꾸어 나가겠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요?”하고 나는 조용히 질문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죽은 나무 그루터기를 뽑아내고 식물을 키우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한단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땅을 잘 다스리면, 그것은 우리에게 응분의 보답을 해준단다. 우리가 숲을 만들어 두면 사슴과 토끼가 와서 우리에서 살게 되고, 그런 목장이 없으면 엄마가 토끼 고기 스투를 만들 수 없겠지. 우리가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없고, 그루터기나 돌멩이를 깨끗이 치우지 않거나 씨를 뿌리지 않으면 농작물이 자라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 외에는 아무도 원망할 수 없게 된단다. 그러므로 우리는 네가 열심히 손을 훈련시켜 글씨를 제대로 쓸 수 있게 힘든 일도 열심히 해내야 한단다. 그렇게 하여 시간이 흐르면 우

리가 열심히 노력한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이란다.”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자, 충분히 쉬었으니, 저 오래된 그루터기를 뽑아내서 다른 작품을 심을 땅을 만들자.”

아버지는 어깨에 막대를 메고 나는 두 손으로 내 막대기를 꽉 잡았다. 우리가 천천히 잡아다니자 뿌리가 흔들렸다. 다시 온 힘을 다해 잡아당기자 그 그루터기는 서서히 뽑혔다. 얼굴에서는 땀이 비오듯 흘러내리고 있었으나 웃음을 지었다. 곧 그 그루터기는 땅에 뒤둥글어졌다. 아버지는 내 어깨 위에 손을 얹고 “드디어 해냈구나.”하며 소리쳤다.

그때 어머니가 들판을 가로질러 건너 오며 “여보, 냉수 가져 왔어요.”하고 외쳤다.

어머니는 컵에 물을 팔아 나에게 주고 나서, 엄마와 아빠는 나무 그늘로 가서 쉬었다. 나는 그루터기 밑에 불어 있는 흙을 털어 내고 있었다. 그러다가 나는 손가락으로 촉촉히 젖은 갈색의 흙을 파내어 손가락 사이로 흘려 내리고 부드러운 흙무더기를 만든 다음, 손으로 반반하게 두드려 그 위에 막대기로 조심스럽게 내 이름을 적었다. 선이 고르지 못하고 삐뚤삐뚤 써졌다. 그러나 계속 연습하여 결국 나도 잘 쓸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내 이름을 지워 버리고 들판을 바라보았다. 길다란 푸른 선이 이랑 위에 뚜렷이 나타났다. 방풍 나물과 우수수와 당근과 사탕무우들이 땅을 뽑고 올라온 것이었다. 여기저기 나무 그루터기와 돌멩이가 땅 속에 박혀 있었다. 그것을 모두 파 내자면 일년은 걸리겠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혼자

미소를 지었다. 그건 보통 일이 아닐거야. 그러나 이 땅은 결국 내 것이 될 테니, 부모님의 일을 자랑스럽게 계속해 나가야지.

\*

“유산이 무엇인데요 ?”

“유산이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려주는 귀중한 것이란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네가 결정하게 될 것이다.”



# 승영의 길



인천 스테이크 부장  
허 채

**성** 도들이 지금 생각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는 너희에게 계명 하나를 주어 너희 스스로 조심하게 하노니, 곧 영생의 말씀을 명심하기에 부지런하라.”(교성 84: 4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요 17: 3).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어떤 차이가 생기겠습니까? 우리를 살펴보시는 눈과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귀를 가지신 사랑하는 아버지를 마음속에 그리며 기도할 때 어떤 차이가 생기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으며 그의 뜻대로 산다면 다시 그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알 때 어떤 차이가 생길까요? (요 11: 25~26 참조).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은 진실로 인간은 불사불멸의 영이고 “예지와 진리

의 빛”이며 전세부터 존재하는 실체이며, 영적 실체는 육신이 없어진 후에도 모든 특징을 간직한 채 계속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성 93: 29; 예레미야 1: 4~5; 교성 130: 18~19 참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울법(시편 82: 6)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요 10: 34) 예수님이 전세에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울법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9: 6; 이더서 3: 16; 교성 110: 3~4 참조)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람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요 10: 33) “성경은 폐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요 10: 35)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 5: 48)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히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아버지처럼 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내려온 것입니다.(롬 8: 16~17 참조)

사과의 씨앗 속에는 사과 나무의 형태와 열매가 될 인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온전히 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죽은 선조에게도 인간은 신이 될 수 있다는 똑같은 복음이 전파되어(벧전 3: 18~19) 그들도 이 복음을 받아들여 육체로는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벧전 4: 6 참조) 그러므로 그들을 위해 산 자들이 대리 침례를 받아 영원토록 가족이 함께 살게 됩니다. (고전 15: 16 참조) 이것은 분명히 성경

에 기록되어 있으며, 기독교의 교리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인 우리를 위해 구원의 계획을 마련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계명은 진실로 우리를 위하여 주신 훌륭한 사랑의 선물인 것입니다(고전 2: 6~9 참조).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은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아내를 사랑하여 결합하며 다른 아무 여자와도 결합하지 말라.”(교성 42: 22)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벧전 3: 7)이기에 귀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 지상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찌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므로 하나님이 짹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찌니라”(마 19: 4~6)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은 영원한 결혼을 믿습니다. 영원한 결혼에 관한 진리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지상에 밝혀졌습니다.(교성 132: 19~20 참조)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 크다고 하시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에베소서 5: 28~32; 교성 10: 64 참조).

“어떠한 일로도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지 못하되 다만 만사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느니라.”(교성 59: 21)

“그러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의 왕국의 비밀을 주리라. 왕국의 비밀을 간직한 자는 그 안에 생명수의 샘이 있겠고 생명수가 솟아나와 영생을 얻게 되리라.”(교성 63: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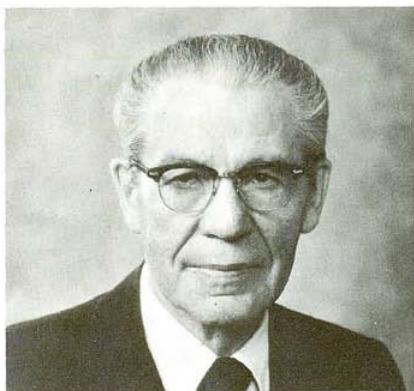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은 영원한 것입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옳게 결혼하십시오. 우리의 결혼 역시 영원한 결혼입니다. 나의 간절한 권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교성 132: 63 참조) 이 세상에 많은 아버지가 있어도 나를 낳으신 분은 한 분인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유일하신 한 분의 영의 아버지가 계시며, 우리의 구속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실 뿐입니다.(요 17: 3 참조) 누가 우리를 위해 속죄의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위대한 교사요 구세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사 자신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요 5: 19~21 참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마 5: 8)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스데반이 본 것과 같이(행 7: 56 참조) 보았으며, 그와 대면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구약전서에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창 32: 30)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의 육신의 부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마 7: 9~11; 히 12: 9 참조)

우리가 승영에 이르기 위해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말씀대로 생활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변화 속의 불변성



엔 엘든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1 보좌

“항구 불변의  
다섯 가지 경제 원칙을 따라 지키면,  
어떠한 경제 여건하에서도  
재정적인 안정과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 2차 세계 대전중에 십이사도 평의회의 일원인 앤버트 이 보웬 장로는 라디오 연설문을 모아 “변화 속의 불변성”(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뉴스 출판사, 1944년)이라는 제명으로 한 권의 책으로 발간했는데 그 책에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는 매우 시기적절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알력의 세상에 살고 있으며, 전세계 사람들은 확실하고, 안정된 메시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의 상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소란스러운 전쟁 시기와 조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우 복잡한 문제에 당면해 있습니다. 심각한 국제 정치 문제 외에도, 우리는 인플레이션과 개인적 재정관리 문제로 인해 수십년 이래에 가장 어려운 경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나는 보웬 장로의 책 제명을 빌려, 내가 60여 년간 일을 통해서 얻게 된 나름대로의 경험과 확신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경제적 주기의 각 주기를 겪어 왔습니다. 청년 시절 일생의 첫걸음을 내디디면서 나는 개인적인 디플레이션을 경험했습니다. 경기 후퇴와 인플레이션의 시기 뿐만 아니라 국가적 및 국제적인 디플레이션도 경험했습니다. 나

“총관리 역원들의 요청에 따라 성도의 벗 지역 소식란에 1979년 10월 반연차 대회의 복지 모임에서 행한 태너 부대관장의 현명한 권고의 말씀을 다시 게재하여 드립니다.

는 경제적인 주기에 이를 때마다 소위 해결책이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 로버트 프로스트와 같은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게 되는 대부분의 변화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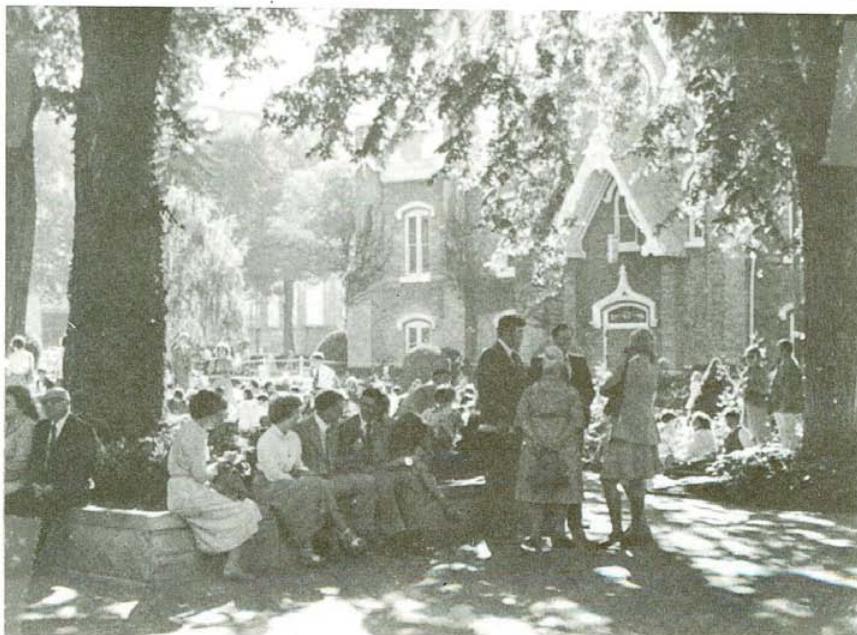
우리가 받아들이는 진리로 인함이니.”

(“검은 오두막집” 로버트 프로스트 시선집, 에드워드 코너리 래덤 편, 1969년 58페이지) 오늘 내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키기만 한다면, 어떠한 경제적인 상황에서도 재정적인 안정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항구적이고도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나의 견해입니다.

첫째, 이러한 경제적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범위 내에서 얹면 기본이 되는 견지를 세우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한 손자 아이가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할아버지와 같이 성공하신 분들을 뵙고 나도 내 인생에서 성공을 거두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성공을 거둔 많은 분들을 보고 어떠한 요인으로 그 분들이 성공을 거두게 되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할아버지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할아버지는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바 가장 위대한 성공의 공식은 주께서 주신 것이라고 손자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태복음 6: 33)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재정적으로 번영한다고 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그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먼저 주님의 왕국을 구할 때, 다



만 물질적인 부만을 약속한 것은 아닙니다. 내 경험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헨릭 입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많은 사물의 겹침은 살 수 있어도, 핵심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음식물을 살 수 있어도, 식욕을 살 수는 없으며, 약은 살 수 있으나 건강은 사지 못한다. 친구는 구할 수 있으나, 진정한 친구는 얻지 못한다. 좋은 구해도, 심복을 얻지는 못한다. 즐거움은 얻게 되어도, 진정한 평안과 행복은 얻지 못한다.”(프로버스의 인생에 관한 모음, 뉴욕, 프로버스사 1968년, 88 페이지)

물질적인 축복도 올바른 방법과 올바른 목적으로 얻게 된다면 복음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휴 비 브라운 부대관장의 경험에 생각납니다. 일차 세계 대전 당시 젊은 군인이었던 그는 병원에 있는 한 노인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80 고령의 배만 장자로 죽음의 문턱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와 이혼한 부인이나 다섯 명의 자녀들 중 누구 하나도 병원에 와 그를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브라운 대관장은 그때 이 노인 친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잃어버렸으며 비극적이고도 비참한 상황을 깊이 인식”했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는 그 노인에게 만일 다시 살게 된다면 어떻게 인생의 태도를 바꿀 것인가를 물어 보았습니다.

노신사는 이런 말을 하고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가 인생을 되돌아보니, 재물을 모으는 데 너무나 급급하여 놓쳐 버리기는 했지만, 내가 간직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귀중한 재산은 나의 모친이 하나님에 대하여 품고 있던 단순한 신앙과 영혼의 불멸성이라고 생각하네.”

“……자네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물었지. 한 시인이 들려준

말보다 그것을 더 훌륭하게 대답할 수는 없겠네” 그는 브라운 부대관장에게 가방에서 조그만 책을 꺼내 달라고 하며 “나는 이방인”이라는 제목의 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신앙은  
나에게는 생소한 이방인  
어머니의 울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나에게는 낯선 분  
기도가 내게 주는 위안을,  
부친이 돌아가실 때 잡아주시던  
영원한 팔은 나에게는 생소한 이방인  
커다란 세계가 내게 와 나를  
부르니,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네.  
내 눈이 멀어 주님의 손에서  
내 손이 빠져 나오는 줄도 몰랐네.  
물거품같은 명성이 공허함은 혼란한  
불빛에 눈이 어두워 꿈꾸지도 못했네.  
금덩이는 번씩 번씩 빛남을  
내가 안 이후로  
내가 그것을 발견했을 땐 걸어차  
버릴 것을  
일생동안 찾아 헤매었네  
나는 열심히 싸워 많은 것을  
얻고 앞섰으나,  
어머니가 지녔던 그 신앙을  
얻을 수는 없었네  
명성과 행운과 그에 따르는  
즐거움 등 모든 것을 버려도  
그것만 얻을 수 있다면……

“이것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교회에서 멀리 떠난 생활을 해온 한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한 간증입니다. 돈으로 무엇이든 살 수 있으나, 이 세상의 재화를 얻기 위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은 한 외로운 인간의 절규였습니다.

물론 경에서 예언자 야곱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중요한 충고를 해 주고 있읍니다.

우리는 먼저  
왕국을 구하고,  
일하고 계획하며  
현명하게 소비하고,  
미래를 위해 계획하고,  
우리가 축복받은 부를  
왕국 건설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영구한 면에서  
인도되고  
굳건한 기반위에  
건설해 나간다면,  
우리는 치밀하게 계획하여  
부지런히 추구해 나가는,  
인상적인 과업과  
일생의 사업에  
자신을 갖고  
추구해 나갈 수 있읍니다.

“너희는 세상의 부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얻을

후에라야 너희가 구하는 바 부를 얻을 것이요, 선행을 위하여 이를 쫓으리니, 헐벗은 자를 입히며 굶주린 자를 먹이며 구속된 자를 놓아 주며, 병들고 고난을 겪은 자들을 살펴 구제하게 되리라”(야곱서 2: 18~19)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뜻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왕국을 구하고, 일하고 계획하며 현명하게 소비하고, 미래를 위해 계획하고, 우리가 축복받은 부를 왕국 건설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영구한 면에서 인도되고 굳건한 기반위에 건설해 나간다면, 우리는 치밀하게 계획하여 부지런히 추구하여나가는, 인상적인 과업과 일생의 사업에 자신을 갖고 추구해 나갈 수 있읍니다.

이를 토대로 하여 나는 다섯 가지의 불변적인 경제 원칙을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불변성 1: 정직한 십일조를 바친다. 나는 십일조를 바치는 것은 주님과 교회에 선물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십일조를 바치는 것은 주님께 진 빚을 갚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포함하여 우리가 받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십일조를 바치는 것은 하나의 계명, 그것도 약속이 수반된 계명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땅에서 번성”(앨 50: 20 참조)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번성한다는 데에는 물질적인 부 이상이 포함되는 것으로, 육신의 건강과 활기있는 마음도 포함될 수 있읍니다. 그에는 가족의 단합과 영적으로 커지는 것도 포함됩니다. 나는 현재 완전한 십일조를 바치지 않는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신앙과 큰 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물주에 대한 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여러분도 이 계명에 충실했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큰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불변성 2: 수입의 범위내에서 생활하십시오. 나는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벌어 들일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인간이 마음의 평안을 느끼게 되는 것은 개인이 벌어들이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번 돈을 조정해서 쓰는 데 있다고 확신합니다. 돈은 양전한 종이 될 수도 있고 무서운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여유를 갖고 생활을 꾸려나가는 사람은 그들의 환경을 지배하게 됩니다. 수입보다 더 많이 지출하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즉 구속을 받게 됩니다. 그랜트 대관장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가족에게 평안과 만족감을 가져다 주는 한 가지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수입의 한도내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또 실망과 낙담을 안겨주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채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복음의 표준, 솔트레이크시티: 임프르브먼트 이라, 1941년, 111페이지)

우리가 벌어들이는 것보다 적게 소비하는 비결은 단순한 것입니다. 즉, 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거나 늙거나, 우리는 누구나 결국 자기 자신을, 우리의 욕망과 경제적인 욕구를 자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버는 것보다 적게 소비하여 재난에 대비하여 저축할 줄 아는 사람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불변성 3: 필요와 욕망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소비 욕망은 우리 자신이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현대의 경쟁적 자유기업 체제는 한없이 많은 상품을 만들어 내어 좀더 편리하고 사치스런 것을 원하는 욕망을 자극시킵니다. 나는 그러한 체

제나 유용한 이러한 상품을 비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건전한 판단력을 사용하여 구매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는 회생은 영원한 자제심의 핵심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이나 대부분의 세계 각국에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출생한 많은 부모와 자녀들은 오직 변형된 상태만을 보아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만족에 지배되어 왔습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일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치품으로 여겨왔던 것이 오늘날에는 필수품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부부가 집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 호화로운 가구를 들여 놓는 것이 상례처럼 되어 있으나, 그들의 부모는 수십년 동안 애쓰고 회생하여 겨우 그런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들은 너무 빨리 너무 많은 것을 원함으로써, 손쉬운 월부 구입 계획을 세워 곧 빚더미에 앓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들은 교회에서 제시하는 식품비축 및 기타 안전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수단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과욕과 금전 관리의 부족은 결혼 관계를 크게 긴장시킵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가족을 부양할 만한 수입이 부족하든가 아니면 벌어 들인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등의 경제적인 근원에서 연유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젊은 아버지는 감독을 찾아와 재정적인 상담을 하며 흔히 듣게 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감독님, 나는 기술 교육을 받아 돈도 괜찮게 벌고 있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것은 돈을 버는 방법이었지,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내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소비 교육을 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부모가 훈련받아야 합니다. 부모는 이 중요한 훈련을 전적으로 학교나 대학교에 그 책임을 전가시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 훈련을 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는 부채를 설명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부채에는 소비성 부채와 투자 또는 기업 부채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비성 부채는 우리가 일상 생활에 사용 또는 소비할 물건을 외상으로 구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의복이나 가정 비품, 가구 등을 구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비성

부채는 우리가 장차 받게 되는 수입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잃거나 긴급한 경우를 당하게 되면 빚을 갚기가 힘들게 됩니다. 월부 구입은 아주 비싼 값으로 구입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물건 값에 많은 이자와 부과금이 가산되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는 외상 구입권으로 물건을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이 참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면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부채를 갚기를 주의시켜 드립니다. 돈의 여유가 없을 때는, 이자 지불로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투자성 부채는 가족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여행을 바라는 투기성 투자는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행을 바라게 되면 그것에 도취되기 쉽습니다. 좀더 많이 모으려는 한없는 욕망에 의하여 많은 행운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좀더 부를 얻으려는 탐욕에 우리의 시간과 정력과 건강을 예속시키지 않도록 하십시오.

김볼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사려깊은 충고를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과거와는 비교해 볼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은 선한 것이며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일을 행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은 가축과 땅과 곳간과 부를 갖고 있어서 그것들을 그들의 우상으로 섬기고 그러한 것들을 오히려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 주식, 증권, 재산, 부동산, 크레디트 카드나 가구, 자동차 등 행복한 이 세상 생활을 보장해 줄 것 같은 이



1979년 10월 반연차 대회에서  
말씀하는 태너 부대관장과 총관리 역원들.

## “변화속의 불변성”

러한 자기의 우상을 위해 일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이와 같은 많은 자원을 우리의 가정과 정원회를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임을 망각하고 있읍니다.”(성도의 벗, 1976년 6월호, 3페이지)

김볼 대관장의 말씀에 저의 간증을 덧붙이겠습니다. 가족이 당연히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것에 따라 행복과 마음의 평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불변성 4 : 예산을 세워 생활합니다.  
한 친구에게 브리감 영 대학 교환 학생 프로그램으로 한 학기 동안 해외에 나가 있는 딸이 있읍니다. 그녀는 집에 편지쓸 때마다 항상 돈을 더 보내 달라고 하였읍니다. 아버지는 국제 전화를 걸어 딸에게 무엇 때문에 돈이 더 필요한지 물어 보았읍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딸은 이렇게 설명했읍니다. “그렇지만, 아빠, 아빠가 보내주신 돈을 어디다 다 썼는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읍니다. “너는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구나. 아빠가 흥미를 갖고 있는 것은 돈을 어디다 썼다는 계획이 아니라 예산 즉 돈을 쓰는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

부모는 타 지방에서 대학에 다니는 아들이 “돈이 없어 재미가 없읍니다. 아들”이라는 내용의 전보를 집에 보내자, “정말 안됐음. 아버지”라고 회신을 보낸 아버지의 태도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 접견한 결과 나는 예산을 세워 생활하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예산을 세우게 되면 구속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읍니다. 그

### 항구 불변의

#### 다섯 가지 경제 원칙

- 1) 정직한 실일조를 바친다.
- 2) 수입의 범위내에서 생활한다.
- 3) 필요와 욕망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 4) 예산을 세워 생활한다.
- 5) 거래에 있어서 정직해야 한다.



와는 반대로, 사회에서 성공을 거둔 많은 사람들은 예산을 세우는 것이 경제적인 면에서 자유를 누리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산을 세우고 재정을 관리하는 데에는 지나치게 복잡하게 또는 시간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이 지불할 금액은 구두 상자에, 영수 금액은 물레가락에, 현찰은 금전 등록기에 넣은 어느 이민해 온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기업체 운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하고 그 아들이 물었습니다. “이익이 얼마나 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애야.”하고 그 기업가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배에서 내릴 때는, 입고 있던 바지 한벌 뿐이었다. 지금은 네 누이가 미술 선생이고, 네 형은 의사이며 너는 회계사가 아니나. 이제는 자동차도 있고, 집도 있고, 큰 기업체도 있지. 게다가 빚진 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 네가 그 모든 것을 다 합쳐 거기서 바지를 빼면, 모두 다 내 이익이 된다.”

현명한 재정 상담자는 훌륭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네 가지 다른 요소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첫째는 식품비와 의복비와 같은 기본적으로 생활해 나가는 데 필요한 것과 둘째, 주거비 셋째, 저금, 의료 보험, 생명 보험 등과 같이 비상시의 필요를 위해서 넷째, 투자 및 미래를 위한 저축 프로그램 등을 위한 항목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중 두 가지 요소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활해 나가자면 생

각지도 않던 일이 반드시 생기게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중대한 사고, 질병, 출산 특히 조산등에 막중한 비용이 들어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의료 보험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생명 보험은 계약자가 뜻하지 않게 사망하면 보험금을 계속 지급받게 됩니다. 어느 가정이나 건강 및 생명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 사항이 충족되면, 투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검소한 생활 관리로 규칙적으로 저축해야 합니다. 내가 이제 까지 보아온 바에 의하면, 먼저 규칙적으로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지 않은 사람으로 투자하여 성공을 거둔 예를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훈련과 판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투자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투자 상담자를 잘 선택하시기를 충고드립니다. 투자에 성공한 것을 기록하여 자신을 갖고 장점을 살려 나가도록 하십시오.

불변성 5: 거래에 있어서 정직한다. 정직과 성실성을 결코 유행에 뒤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적용됩니다. 교회의 지도자요 회원인 우리는 성실성의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러한 다섯 가지 원칙을 통해서, 나는 재정과 자원 관리의 참된 형태가 되는 특성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이를 실제로 적용하여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나는 그러한 원리가 참되며 이 교회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참되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

“총관리 역원들의 요청에 따라 설도의 벗 지역 소식란에 1979년 10월 반연차 대회의 복지 모임에서 행한 태너 부대관장의 현명한 권고의 말씀을 다시 게재하여 드립니다.”

